

녹취록

제주전통옹기 기능보유자와 1대 기능인들의 삶

책임연구자: 염미경(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장)

개요

주 제 : 제주전통옹기 기능보유자와 1대 기능인들의 삶
구 술 자 :
면 접 자 : 염미경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장)
촬영기록 : 윤나련 (제주대학교 사회교육전공 석사)
면접일자와 장소 :

* 연구사적 의의 : 제주전통옹기는 완전히 소멸되었다가 지역문화유산으로서 소생하는 과정을 거쳐 왔는데, 제주전통옹기의 성장과 쇠퇴 그리고 소생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형성 및 전통옹기의 지역적 전개와 소생 과정,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생활문화사를 담은 인문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기록은 그러한 시도의 하나이다. 과거 제주전통옹기 제작에 몸담았던 1대 기능인들이 고령으로 한분 두 분 돌아가시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기능보유자와 1대 기능인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이 구술자료는 제주에서 전통옹기업의 형성과 전개과정 및 제작과정은 물론 전통옹기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되는 과정까지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생활문화사 연구와 관련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구술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 차 구술

나는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옹기 관련 자료수집사업의 취지를 이해하며,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1. 구술은 녹음·녹화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녹취록을 만든다.
(녹음·녹화한 테이프와 그 파일, 녹취록과 그 파일을 '구술자료'라고 통칭한다.)
2. 나는 구술자료에 대한 제반권리를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에 이양하며, 구술자료에 대한 복사·이용·출판에 대한 권리를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와 공유한다.
3. 구술자료는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보존·관리하며,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는 사료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자체 규정에 따라 학술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

작성일 : 2015년 8월 16일

이름 : 신광현 (인신)

생년월일 : 400120

주소 : 서귀포시 새마을구역
(중앙로42-1)

구술자 사진



구술자 신상카드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구술자 인적사항	성명	신창현
	생년월일	1940년 1월 20일 (실출생년도 1939년)
	출생지	보성 상동 출생
	현주소	대정 중앙로 42-1
	전화번호	010-2809-7203
	참고사항	제주 무형문화재 14호
주요활동	연도	활동내용
	1939년	대정읍 보성 출생
	1945년	7세경 초등(국민)학교 입학
	1948년	3학년 때 4.3사건 발생 후 보성하동으로 소개 감
	1953년 ~	15세 경 옹기 배우기 시작 (2년간 신봉염 도공에게 배움)
	1960년대 후반	옹기 쇠퇴전까지 도공으로 옹기업에 종사
	1970년대	옹기업이후 석공 및 농업활동
	1985년~ 1986년	일본 생활
	1995년 이후	도예촌에서 강창언과 옹기 복원작업 참여
	2001년~ 이후	제주 중요 무형문화재 14호 허벅장 및 옹기 전수 활동
	2011년~ 이후	2011년 제주 무형문화재 14호 옹기장으로 명칭 변경 옹기시현 및 전수활동

면접자 신상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면 접 자	성 명	염미경
인적사항	소 속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장
	참고사항	

면접 일지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구 술 자			
면 접 자 (보조면접자)	염미경 (윤나련)		
면담 일시 / 장소		일 시 (시간포함)	장 소
	1차	2015 년 8월 2일 (시- 시)	구술자 자택
	2차	2015 년 8월 16일	구술자 자택
	3차		
	4차		
	5차		
	6차		
산 출 물	mp3파일	2	개
	영상파일	2	개
면접주제 (주 요 어)			
특기사항			

질문지

1. 출생과 가정

- 출생(연세, 출생지, 거주기간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부모님(출생지, 생활지, 직업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가족구성(형제자매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집안분위기와 가정형편은 어떠했습니까?

2. 성장기의 문화적 배경과 교육

- 성장지(위치, 규모, 주요 산업 등)는 어떤 곳입니까?
- 성장지에서 웅기업의 규모와 분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유년시절은 어떻게 보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학교(초등학교 등)는 어디를 다니셨고,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습니까?
- 학창시절 중 기억에 남는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제주4.3과 한국전쟁 중 학교와 마을 분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 직업과 일: 웅기업 종사 경위와 전수, 웅기 제작, 그리고 웅기업의 쇠퇴

- 웅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동기는 무엇입니까?
- 웅기제작을 배울 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 웅기제작은 분업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웅기제작과정과 참여한 공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웅기제작과 관련된 모임이나 규칙이나 관습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웅기업이 가장 발전할 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 웅기업이 가장 발전할 때 웅기업(제작과 판매) 종사자들과 당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웅기업이 가장 발전했을 때 수입과 살림살이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제주4.3사건 당시 웅기제작이 중단되었는데, 그때의 마을 상황 및 일과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웅기업이 쇠퇴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고, 그때 웅기업에 종사했던 도공들은 어떤 직업으로 전업했는지 웅기업 쇠퇴 이후의 직업과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 전통옹기의 복원과 소생

- 최근 전통가마의 복원 등 제주옹기의 복원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복원작업을 해오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제주옹기의 복원작업에 참여하고 계시는지요?
- 제주옹기업을 복원하고 지역문화유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현재의 지역 내 복원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5. 결혼과 가족

- 결혼은 언제, 어떻게 하셨고 배우자의 출신지와 가정, 일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자녀들(학력, 직업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 제주전통옹기의 축제화와 문화유산화 과정

- 제주전통옹기의 전승 관련 단체들(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꺾은돌, 제주도예촌, 꺾은돌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제주옹기박물관의 설립(대정읍 구억분교 터)과 이전(무릉리), 대정읍 구억리 소재 제주전통옹기 전수관과 체험관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201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제주옹기축제(제1회만 대정읍 신평리, 제2회부터는 대정읍 무릉리 개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관여해오고 있습니까?
- 제주전통옹기 전승체계(기능보유자-전수교육조교-전수장학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제주전통옹기 전승체계와 전승활동에 대한 행정의 지원에 대한 평가와 제언

7. 회고와 전망

- 옹기업에 종사했던 것에 만족하십니까? 다시 태어나도 옹기업에 종사하시겠습니까?
- 옹기업에 종사하지 않으셨다면 어떠하셨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옹기업에 종사했던 시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고 가장 좋았던 때는 언제였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전 생애를 돌아볼 때 가장 좋았던 때는 언제, 무엇이었습니까?
- 전 생애를 돌아볼 때 가장 좋지 않았던 때(혹은 가장 슬펐을 때)는 언제, 무엇이었습니까?
-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상 세 목 록

- 출생과 가정
- 성장기 문화적 배경과 교육
- 직업과 일
- 전통옹기의 복원과 소생
- 옹기 불 때는 과정
- 제주 전통 옹기의 축제화와 문화유산화 과정(1)
- 옹기업 이후의 생활
- 결혼과 가족
- 제주 전통 옹기의 축제화와 문화유산화 과정(2)
- 회고와 전망

녹취록

출생과 가정

면담자 : 그 시작합니다.

구술자 : 네.

면담자 :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구술자 : 신창현.

면담자 : 예. 신창현선생님이시고, 지금 연세 생년월일이?

구술자 : 한 살 줄여지니까 40년생.

면담자 : 아 40년생 몇 월 며칠이요?

구술자 : 1월 20.

면담자 : 1월 20일 되시고 그러면은 지금 그 무형문화재 제주도 무형문화재 14호.

구술자 : 흠.

면담자 : 그 제주 용기장으로 지정 받으신 것이 언제였어요?

구술자 : 용기장으로 받은 것은 2011년도.

면담자 : 아 맞아. 2001년.

구술자 : 11년도.

면담자 : (말이 섞이는 중) 2011년도.

구술자 : 허벅장이.....

면담자 : 허벅장이..아.

구술자 : 2001년도에 했고 한 십년 하다가.....

면담자 : 아 맞아. (말이 섞이는 중) 제주도 무형문화재 허벅장으로 처음 지정을 받으셨고 그때는 혼자

구술자 : 아 제주도에 나 혼자뿐이지. 아무도 없지. 컵이고 뭐고 장난하는 디가 없었어요. 그땐.

면담자 : 10여 년 동안 계속 허벅장으로 혼자 그 제주도 용기장, 용기장으로서 일정역할을 해오셨잖아요?

구술자 : 예.

면담자 :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인제 그 제주 용기가 분업으로 분업화? 분업화가 인정되어 가지고 분업화 때문에 아마 인제 제주 용기장으로 바뀐 것 같은데.....

구술자 : 몰라. 나 그거가 뭣산디[무엇인지].

면담자 : (말이 섞이는 중) 제주 용기장으로 바뀐 것이 2011년도니까 그때부터 인제 보면은 제주 용기장 도공장이, 제주 용기장 도공장. 그죠? 2011년도부터는?

구술자 : 음.

면담자 : 지금까지 인제 제주도 무형문화재 그 14호 일단 아직 그대로 쓰고 있고 그죠?

구술자 : 아냐 그 원래는 허벅장이 2001년에 만든 14호입니다. 계.

면담자 : 예.

구술자 : 그 14호를 판 사람들하고 같이 집어넣으면서 곁 이젠 집 주소 모양[모양]으로 하나로 딱 해놓고, 14호는 명품으로 놔둬놓고 노1, 노2, 노3..

면담자 : 선생님이 지금 노4?

구술자 : 노4로 되어있죠.

면담자 : 노4로 지금 되어있죠. 보면은 노4로 되어있고 괄호해가지고 도공장으로 지금..지금
에 이르고 있는데 태어나신 곳은 어디십니까?

구술자 : 태어난 곳은 저쪽.

면담자 : 보성리?

구술자 : 예.

면담자 : 보성리에서 보성리로 태어난 곳은 행정구역 때문에..보성?

구술자 : (말이 섞이는 중) 옛날엔 다 보성으로 했다고

면담자 : 아 전부다 보성리로.....

구술자 : 4.3사건 올라온 후에 여기 살았던 저기 살았던 구역리로 하나로 그냥 불르는[부르
는] 거지. 겐디[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때가 그 굴 앞에 앞애가 그 집 앞에

면담자 : (말이 섞이는 중) 구역리 가마 거기[거기, 그곳]?

구술자 : 그 집 있는 노랑 굴. 그 앞에 밭이 또 앞에 밭이 우리 할아버지 살았던 텐데.

면담자 : 아.

구술자 : 거기가

면담자 : 구역 상동?

구술자 : 음.

면담자 : 상동이죠? 하동? 상동?

구술자 : 아니 이젠 상동이 되었는데 그때는 구역리랬지. 4.3사건 때는. 계남[그러니까] 우
리는 보성으로 와서 4.3사건 맞았고, 거기 할아버지네 살아난 건 모르고 거기 번
지를 쓰고 있다고. 지금도.

면담자 : 지금 번지가?

구술자 : 음. 상동의 번지. 할아버지네 쓰던 거.

면담자 : 아. 그면은 거기에 밭이 있었어요?

구술자 : 음.

면담자 : 밭이 아 밭이 있었고.

구술자 : 집 지서난[지었던] 터가 있었지.

면담자 : 아 집 지었던 터가 있었고, 그면 뭐냐 그 노랑 굴, 지금 문화재 있는 쪽 거기 언저
리겠네요? 보면은?

구술자 : 바로 그 앞에.

면담자 : 그 앞에 아 지난번. 박근호 선생님 댁도 거기 부근이죠? 박근호 선생님.

구술자 : 그 지금 집하나 있는 데가 거기 집이지.

면담자 : 거기 바로 붙어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은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태어난 곳은 보
성.

구술자 : 음.

면담자 : 보성에서 태어나셨고, 가족은 그면은 부모님 돌아가셨죠? 보면은.

구술자 : 음.

면담자 : 그 다음에 형제가?

구술자 : 형제도 우리 형님은 돌아갔고, 누나 돌아갔고.

면담자 : 형 있고 누나있고.

구술자 : 그 다음은 내가 대장이지.

면담자 : 아 세 번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술자 : 동생들.

면담자 : 동생들 몇 분? 선생님 밑으로는?

구술자 : 나 밑을 서이[셋]

면담자 : 세 명. 딸.....

구술자 : 아니 아들. 아 딸까지 넷.

면담자 : 딸까지 넷. 아 그렇게 지금.

구술자 : 우리 7남매라서.

면담자 : 7남매. 7남매의 셋째예요? 그러면?

구술자 : 나가?

면담자 : 예. 순서로.....

구술자 : 순서로는 셋째고.

면담자 : 아들로는 두 번째.

구술자 : 음.

면담자 : 아 그렇게 되셨구나. 그러면은 어렸을 때 거기 그러면은 부모님, 부모님 터전은 구역 리겠네요?

구술자 : 음.

면담자 : 돌아가신 부모님 터전은 그 생활 거기 주로 거주지는 구역리였겠네요?

구술자 : 계란[그러니까] 구역리 번지를 쓰지.

면담자 : 아 구역리 하동, 4.3사건 때문에, 이제 밑으로 소개를 보성으로 가신 거예요?

구술자 : 보성으로 갔다가 일로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그때 잘못된 거지. 올라갈 바엔 더 올라가야할 건데 가다가 하차하니까 삼개부락 가운데 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 구역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구역리로도 안되고, 구역리 된 데는 저쪽 평화 상회 쪽으로 이렇게 구역리 사람은 열 사람 안 돼.

면담자 : 아 그래요?

구술자 : 음. 여기는 안성.

면담자 : 안성, 아.

구술자 : 음. 저 길로 쪽하게 가서 보성. 겐디[그런데] 가다가 그렇게 앉아버리니까 계란[그러니까] 이 번지를 못 쓰는 거지. ...상동번지를. 계속 쓰니까. 행정적으로도 자꾸 나빠지고 그걸 고치라고 해도 안돼요.

면담자 : 지금은 도로명으로 써버리니까. 도로명으로 쓰잖아요? 옛날 번지가 거의 사용을 안하게 되었잖아요? 여기가 중앙로, 중앙로죠? 보면은?

구술자 : 계란[그러니까] 건 찾아다니는 번지고. 읍사무소에서는 저 번지 도로명 주소 안에 땅번지를 봐야하거든.

면담자 : 아.

구술자 : 무사 웃으맨[왜 웃어요]? 그 번지가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계란[그러니까] 저거 하나로만 그냥 잠시 쓰고 있지. 계란[그러니까] 신고하랜 해가지고 신고 할려고 했는데 이 주소, 근데 이주소로하면 번지가 도망가 불게[버리게] 되었어.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구역리 사람이 열 사람도 안 되니까. 그래서 부락에서 이거 단체로 묶어가지고 해결될 때까지 이걸 법에서 해야 하니까 우리는 구역리를 뜰 수 없다 해가지고 절로

못 갔지. 계난[그러니까] 처음엔 바꿀 때 몰라서 신고해본 사람도 많이 있어. 그 사람은 모든 게 글로가. 이젠, 선거건 뭐이건 글로 나와. 보성으로…….

면담자 : 아 그래요?

구술자 : 음.

면담자 : 이리로 안 나오는 거?

구술자 : 음. 옛날부터 여기 이서[있어] 나니까 한데 이제사 도로명 주소 나오면서 신고해
분 사람은 그쪽으로 나와.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우린 아무것도 못했지.

면담자 : 그러면은 어쨌든 부모님의 생활 터전은 원래 구역리였어요? 원래?

구술자 : 음.

면담자 : 원래 몇 대 구역리에서 사셨던 거예요?

구술자 : 몰라 그건.

면담자 : 그건 (웃음) 어쨌든 그면은 밭농사 지으셨겠네요?

구술자 : 밭농사, 다 밭농사지.

면담자 : 그 당시에 어렸을 때 주로 뭘로 생활을 했나요? 여기 대정쪽 구역리 같은 경우에는?

구술자 : 여기는 나도 이쪽에는 옛날에 보리, 콩, 이 고구마도 중간에 나온 거고 그 옛날엔
보리도 어디 뭐 팔아서 뭐 이기 용돈 쓰는게 아니고 자기 양식인데 그 것도 간제
안행[찌부리지않고] 부지런히 농사지은 사람이 자기 양식. 이 비료도 없었고 그때
는 수확이 안 났어.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그 옛날 뭐 선생님은 잘 알겠지만 여기 그 똥돼지라고 옛날 통돼[돼지]만 길르고
[기르고] 하면은 소 길르면서 소 맥여난[먹었던] 거플 그래 담아왔다가 걸로 만들
어서 돼지가 벌려 놓으면은 썩으면은 그걸 꼬집어내가지고 것에 보리씨 버므려가
지고 쇠로 걸렁 밭에강 가치에 담양 여자분들 뿌려 놓는거지. 것도 얼마 안 되지.
도돼기[돼지]하나가 한 거 얼마 돼? 나머지 보리씨만 데껴그네[던져서] 갈면은 썩
이 안 나지.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계난[그러니까] 많이 한 사람이 자기 양식. 자기 양식도 못 먹어가지고 보성에가
서 돈 꺾다가 죽지 말라야할 거니까 이 먹다보면은 돈 갚으진 못하고 계속 늘어나
는 거지. 이자를.

면담자 : 아 그때도 그때도.

구술자 : 4푼이라고 그때는 4푼이 아니고 이 자리라고 했어. 이 자리라고. 이 자리면 만원
이면 천원 되겠지. 그렇게 빚지명 썼어.

면담자 : 생활이 힘들니까.

구술자 : 계난[그러니까] 이 년만 되면 원전되부러[원금이 되어버린다는 의미]. 이자에, 이
자 계난[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물기가 잘도 힘들었지.

면담자 : 구역리가 정말 힘들었나봐요. 옛날에는.

구술자 : 음. 잘도 힘들었어. 경해서[그렇게 해서] 중간에 그 옹기가 나온 거지.

면담자 : 옹기를 하기 시작했구나.

구술자 : 아 옛날부터 한 거는 맞는데 안 되었다가 4.3사건에 안했다가 다시 시작을 한거지.

면담자 : 아. 그러면 4.3사건 전에도 먹고 살기 힘들니까 옹기

구술자 : 했어.

면담자 : 다 했죠? 그때도?

구술자 : 음.

성장기 문화적 배경과 교육

면담자 : 구억리에 그때 선생님 어렸을 때 그 뭐냐 부모님 그 시기에 몇 가구나 구억리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그 구억리가 마을이 컸나요?

구술자 : 크지 않았어요.

면담자 : 그다지 크지 않았죠?

구술자 : 계남[그러니까] 구억리는 나가 보건데 이제 우리 아홉 살에 4.3사건을 맞았는데 나가 보건데 한 오십호나 그렇게 됴도 되었고 또 이쪽에나 안성리엔 한테 한 이십호쯤 되고 보성이랜 한테 우리 살아난 데가 한 십오 호. 겐디[그런데] 굴은 다 따로 따로 했어. 여기 보성서도 하고 안성서도 하고 상동서도 하고.

면담자 : 굴은 자기 마을별로 따로 따로 그러니까.

구술자 : 음.

면담자 : 굴 박아서…….

구술자 : 4.3사건 전에.

면담자 : 아 그러면 구억리에 굴은 몇 개정도 그러면 보통 있었나요? 구억리에 굴이. 여기는

구술자 : 굴이?

면담자 : 음. 옛날 많을 때는.

구술자 : 아 여기 진짜 사용한건 4.3사건 올라와서 사용한건 두 개 뿐이고.

면담자 : 저기 문화재 되어있는…….

구술자 : 아 그건 4.3사건 전에 해난 거고.

면담자 : 그 이후에.

구술자 : 4.3사건 후에는 써보지도 안 해서. 그 검은 굴도 그렇고.

면담자 : 아 지금 남아있는 건 4.3사건 전에 만들어진 굴. 노랑 굴 검은 굴?

구술자 : 계남[그러니까] 여기 안성, 보성 하단 건 다 멜라전[무너져서] 구억리서 사용해 분…….

면담자 : 음. 그러면 마을 사람들 대부분 아까 그 뭐냐 농사도 짓고, 농사가 적으니까 대부분 옹기를 했네요? 대부분 옹기를 구억리 사람들은?

구술자 : 거의 거의. 여자분만 혼자 사는 사람만 못했지. 거의 했어요.

면담자 : 그러면은 인제…….

구술자 : 여기 4.3사건 행[해서] 올라온 해에는 여기가 한 칠십호라만 말제[나중에] 팔십호가 되었던. 호수로.

면담자 : 아.

구술자 : 옛날은 솔단지 앞에서 밥에 먹는게 한 가구라고 하거든. 두 개 살면 두 가구. 그래

서 그런게 70호 되다가 말제 80호 되었는데 인원수를 따지면 200명된거지.

면담자 : 아. 전체 그 주민수는 많지는 않았던 거네요?

구술자 : 많지는 않았지.

면담자 : 그때는 적은 마을이고 먹고 살기 힘든, 대부분이 마을 사람들이 막 부자가 없었겠네요? 거의?

구술자 : 부자 되는 사람들은 있었지. 몇 사람.

면담자 : 아 몇 사람.

구술자 : 한 다섯 사람.

면담자 :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되었죠?

구술자 : 아 그 사람들은 그 아무 때도 조상 때부터 내려오면서 뭐 쥐야 밀친 잡아가지고 부자가 되었지. 요즘은 돈 없어도 잘된 사람은 잘되었주, 옛날은 부모가 안 물려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갔어요. 계난[그러니까] 이제 말테라고 말 많은 사람짓고 [있고], 소 많이 하는 사람 있었어요. 그것이 아버지가 돌아가면 걸 전체로 물리던가 경[그렇게]안하면 여러형제되면 갈르던가[나누던가].

면담자 : 음.

구술자 : 그렇게 한 사람들은 좀 살고 경안행[그렇게 안하고] 뭐 안한 사람들은 참 고단하게 살았지.

면담자 : 선생님네도 힘들셨죠?

구술자 : 아 우리도 힘들었어요. 먹는데 ㄹ르면[말하며] 이해가 안가.

면담자 : 아

구술자 : 4.3사건에 올라온 후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무엇을 먹은 줄 압니까? 숨도 못 끊치고 하니까 쌀도 없지, 이 밀가루, 밀 압니까? 밀?

면담자 : 예.

구술자 : 밀가루가 아니고 그땐 밀을 깎아서 이 가루도 하고 또 이 밥도 하고 했는데 양식으로, 겐디 그 세 번 깎아야 쌀이 되는데 두 번 깎은 걸로 우리가 범벅을 행 먹었다고. 범벅이라고.

면담자 : 아이고.

구술자 : 고구마가 심거서[심어서] 고구마 삶아서 그 가루뎡[넣어서] 버무려가지고 범벅을 행[해서] 먹고 또 저 모슬포 가면은 전분공장이라고 있어요.

면담자 : 그건 한참 4.3사건 이후잖아요?

구술자 : 게메[그렇지] 4.3이후에. 4.3사건 전에는 잘 모르고.(말이 섞이는 중) 우리 아홉살이니까. 4.3사건 전에는 거의 그런식으로 양식을 했지. 거기도. 그때도.

면담자 : 그때도. 식량은 다 안 되고.

구술자 :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때는 더 곤란했지.

면담자 : 음.

구술자 : 그래서 감자주시를 갖다가 지금은 돼지 안 먹습니다. 그걸주면은. 왜 그러니까 그 구덩이안에 주시 전부 뽑아난 주시를 데명 놔두면은 냄새나요. 막. 화장실 냄새추룩. 이놈을 바로 먹지는 못하고, 갖다가 매주처럼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담위에 걸쳐 내부는 거라. 한 몇 달 동안 게민[그러면] 비 맞고 바람맞고 하면서 막 박아가지고 그걸 빠져가지고 그 참 그 밀채지. 밀가루가 아니고. 그것에 버무려먹고. 또 나중에 가면은 그 귀재기라고 해서 저 귀재기랜 한 게 두부 빠난[뺏던]거지.

두두 빠난 거. 거는…….

면담자 : 비지? 비지?

구술자 : 비지.

면담자 : 아.

구술자 : 거는 고급이라.

면담자 : 비지를 어서 구하는?

구술자 : 아니. 모슬포 강[가서], 집에 어디 있어. 공장에 강[가서] 사오는 거지.

면담자 : 두부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

구술자 : 음. 사다가 그 밀나물이라고 밭에 가면은 나물이 있었어. 그저 드릅나물이라고 칼
칼 쓴 거. 그거 캐다가 지금 같으면 난쟁이 같은 거지. 난쟁이는 아니라도. 그거
행[해서] 먹고.

면담자 : 아 살기 힘들었네요?

구술자 : 예.

면담자 : 4.3사건 나기 전에도 그렇게 힘들었겠네요?

구술자 : 4.3사건 전에...

면담자 : 어렸을 때 그니까.

구술자 : 힘든데 4.3 맞아부니까 더 힘들었지.

면담자 : 음.

구술자 : 왜 그런고 하니까 4.3이 겨울에 보리 날 때 4.3맞았는데 겨울에. 보리를 이 갈라
고 걸음빠봐도 갈지 못행[못해서] 그냥 소까이[소개] 가버렸거든. 케니까[그러니
까] 농사도 잘 안 돼 부렸지. 게난[그러니까] 더 힘드렸지.

면담자 : 4.3사건 나고 더 힘드셨군요.

구술자 : 예. 또 올라오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집이 어디 있어요. 딱 2~3평 된 거.

면담자 : 재건 뭐 할 때…….

구술자 : 담으로만 이렇게 딱 놔가지고 우에

면담자 : 한바집?

구술자 : 외국 어느 나라 그런 거 나오던데, 그런 집이라. 낭[나무]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렇게 덮어가지고.

면담자 : 동남아 지역에 어디 뭐 어느 나라..

구술자 : 케니까[그러니까] 경행[그렇게 해서] 하다가 바람 막 들어오고 춥어[추위]가면은
보리짚 보리해난 그 대 걸로 이렇게 구멍 막으멍[막으면서] 해서 잠자가 보면 그
안에 솔 앉히고 잠자당보멍 몸질하는 사람은 솔 강아래 머리 들어 강[가서] 잠자
고.

면담자 : 그러면 거기서…….

구술자 : 덮을 거 어성[없어서] 가마소 덮으고

면담자 : 그면은 거기서 온 가족이 다 생활하신 거?

구술자 : 그럼.

면담자 : 그니까 누님?

구술자 : 어. 다.

면담자 : 형님.

구술자 : 다 같이 들.

면담자 : 다 밑에 일곱, 7남매랑.
구술자 : 계[그렇지].
면담자 : 그때는 부모님 살아계실 거, 아버님도 살아계실 거..
구술자 : 다 살았지.
면담자 : 아. 위에 할아버님은 없..이미 돌아가신 거고?
구술자 : 예. 돌아갔고.
면담자 : 아 그러면 그렇게 재건 거기 뭐냐 세평 남짓한 곳에 한 몇 년 사신 거? 일년, 이년?
구술자 : 한 2년 살아져 실거라.
면담자 : 그 다음에 올라오신 거예요?
구술자 : 아니 올라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
면담자 : 올라와서 그니까.
구술자 : 경[그렇게]하다가 조금 여유되니까 뭐 밭 사서 집짓고 했지.
면담자 : 엄청 고생했네요?
구술자 : 예.
면담자 : 먹을 것도 그 4.3사건 나기 전에 어렸을 때 기억도 거의 힘들었던 기억밖에 안 나네요?
구술자 : 음.
면담자 : 근데 4.3사건 나고는 더 인제 힘들었던 기억? 그쵸?
구술자 : 음.
면담자 : 학교는 다니셨어요?
구술자 : 국민 학교 다녔어.
면담자 : 예. 어디 보성 국민 학교?
구술자 : 음.
면담자 : 보성 국민 학교 몇 살 때 들어가신 거? 4.3사건 전에 들어가신 거?
구술자 : 옛날엔 7살에 들어갔어요.
면담자 : 7살에 들어가서 그땐은 3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3사건 난 건가?
구술자 :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면담자 : 그때 4.3사건 났고. 그러면 공부도 거의 못했겠네? 사건 나가지고.
구술자 : 공부도 먹을거 어성[없어서] 공부할 생각을 안 했지.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돈 있는 사람들은 공부하고.
면담자 : 4.3사건 나가지고 학교도 문 닫았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수업을 했나요? 그 때? 4.3사건 나고도?
구술자 : 다 했지.
면담자 : 아.
구술자 : 구역리만 안 했지. 구역리 여기가 구역리 학교터가 이서났거든[있었다].
면담자 : 보성 국민 학교는 괜찮았던 거?
구술자 : 아 그건 다 했고. 게니까 4.3사건이 내려가서 하차 한거지.
면담자 : 그때 보성 국민 학교 다닐 때 구역리 학생들도 글로[그곳으로] 보성리로 다 소개, 소카이[소개]?
구술자 : 학생들은 여기서 다 흩어정[저서] 간 거지. 뭐 모슬포간 사람 싣고 부모 따라 가

니까 부모가 모슬포로 가면은 모슬포가고, 우린 보성으로 강 하차하니까 보성 따라 갔지.

면담자 : 음.

구술자 : 우리 4.3사건 나기 전에도 보성 국민 학교 다녔다고.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걸어서.

면담자 : 여기서 구역리에선 꽤 걸렸을텐데? 보성 국민 학교까지?

구술자 : 음.

면담자 : 걸어서도 꽤 걸렸을 것 같은데요? 걸어서.

구술자 : 걸어서 뭐 많이 안걸려. 여기서 지금 걸으면 한 삼십분.

면담자 : 삼십분 이면은. 구역리에서. 아.

구술자 : 여기서.

면담자 : 보성에서?

구술자 : 구역리에서는 많이 걸리지.

면담자 : 구역리에서는 구역 국민 학교 다니는 가? 아니면은 구역리 사는 사람들은 국민 학교를 어디 다니는가?

구술자 : 구역 국민 학교.

면담자 : 구역 국민 학교죠? 지금 분교?

구술자 : 분교가, 분교가 아니.

면담자 : 그때는?

구술자 : 에 그것고라 간기학교라고. 일본말을 배웠어. 일본 선생들이.

면담자 : 그때는 구역 국민 학교였어요? 옛날엔?

구술자 : 국민 학교인데 간기학교라고 해가지고.

면담자 : 같기 학교?

구술자 : 여기 거 배우면서 일본글을 많이 배웠다고.

면담자 : 으음. 선생님 어렸을 때도 보성 국민 학교에서..

구술자 : 아니 거기서는 안하고.

면담자 : 구역 국민 학교가 그런 거예요?

구술자 : 음. 계난[그러니까] 구역리는 그전으로부터 4.3사건 전으로부터 학교가 이셨지[있었지]. 계난[그러니까] 어디서 분교냐하면 대정 국민 학교서 분교를 한 거지. 보성 학교보담 먼저 생긴거지.

면담자 : 으음. 아 그랬구나.

구술자 : 학교가 학생들이 서광서도 왔고 저 한경면 저 청수서도 왔고 이 지정이 없었어. 다 허지켄한[할 수 있겠다] 사람들은 다 왔지. 그때 온 사람들은 일본글을 다 배웠지.

면담자 : 아 구역 국민 학교에서 그 할 때? 거기는 거의 일본인들이 주로 일본. 선생님도 일본?

구술자 : 아 일본사람도 짓고[있고], 일본 사람도 짓고[있고].

면담자 : 보성 국민 학교는 그렇지 않았나요?

구술자 : 거기는

면담자 : 한국 사람들이고 그냥.

구술자 : 다 한국사람.

면담자 : 아. 그래서......

구술자 : 우리 다니는 학교가 지금 보성 국민 학교라고 이쪽에 이서 났는데.

면담자 : 지금 보성 국민 학교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건가? 그뎜은? 아

구술자 : 4.3사건 후에 만들어진 거고. 4.3시건 우리 다닐 때 우리 1학년, 3학년 땡길 때는 이쪽에 있었는데 거기 선생이 다 죽었어요. 우리 그 폭도라고 해가지고 옛날 학교에 뼈라 뿌려버리니까 그걸 몰랐다고 해가지고 우리 4.3사건 이사 행 내려가서 겨울 명절날 아침에 다 모이랜[모이라고] 해가지고 총살시켜버렸어요. 선생 쭉욱 세워놓고.

면담자 : 옛날 보성 초등학교?

구술자 : 음.

면담자 : 다 돌아가신 거? 보뎜은?

구술자 : 다 한번에 돌아갔지. 교장선생님부터 해가지고.

면담자 : 그때 선생님들 이름 생각나요?

구술자 : 잘 안나.

면담자 : 잘 안 나고. 몇 분이나 그때? 학교 선생님으로 교장선생님 비롯해서?

구술자 : 여덟 사람인가, 일곱 사람인가 있었어요.

면담자 : 전부다 한국사람? 한국인이었고?

구술자 : 한국사람. 그때 우리 담임은 이름은 알아지는데..

면담자 : 담임도 돌아가신 거? 그때?

구술자 : 담임이고 뭐고 그때 학교 선생은 다 돌아갔지.

면담자 : 담임 성함이?

구술자 : 고남규선생이라고.

면담자 : 고남교? 구역리 어디 사람이었어요?

구술자 : 어디 분은 잘 모르고. 마누라어시[없이] 혼자 살았어. 계란[그러니까] 학교에서 거의 근무했지.

면담자 : 선생님 기억에 고남규선생님이 뭐 이게 기억에 남을 정도니까 꽤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랬겠네요?

구술자 : 음.

면담자 : 보성 국민 학교를......

구술자 : 우리도 3학년 4학년 될 때고 숙직을 나갔지. 밤에.

면담자 : 그래요? 숙직을 팀으로 나눠서......

구술자 : 음. 학교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면담자 : 선생님은 저학년이었는데.

구술자 : 음. 그래서 그 선생님 학교 사니까 우리 가면 벗하고 그렇게 했어요.

면담자 : 아 좀 젊으신 분이였네요?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겠네?

구술자 : 젊어서 안해신지[안했는지], 젊었어요. 체육 선생이라고. 선생은 멋진 사람인데

면담자 : 어쨌든 총살당했네요? 그때?

구술자 : 응.

면담자 : 아휴. 그래서 어쨌든 졸업은 했네요? 거기 보성 국민 학교.

구술자 : 음.

면담자 : 어찌 어찌 인제 보초도 서고 5학년, 6학년 때 즈이면 보초서는 것도 없어졌겠네요? 그죠? 거의 그리고 선생님 5학년 6학년 쯤 되면은 그 육지 사람들이 많이 학교로 오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구술자 : 안 왔어.

면담자 : 피난을 많이 왔다고 그러던데.

구술자 : 피난와도 피난 온 사람은 4.3사건…….

면담자 : 이후에, 이후에.

구술자 : 이후에 오기야 왔지.

면담자 : 그죠?

구술자 : 선생도 한 사람 이셨고[있었고], 이북사람.

면담자 : 그면은 그 당시 그면은 전부다 여덟 분의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다 총살당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새로 왔나요?

구술자 : 음. 학교도 이사하고. 새로 생겼고 학교.

면담자 : 음. 어쨌든 보성 국민 학교는 졸업을 하셨네요? 그면은 이제? 나이 뭐 정규로 특별하게 중단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제 나이에 그대로 졸업을 하셨네요? 그면은…….

구술자 : 우리가 보성 국민 학교 전체로 따져가지고 7회.

면담자 : 7회예요? 아 7회구나. 그러면 지금은?

구술자 : 여기서 4.3사건 여기서 공부하당 내려간 사람이 3회.

면담자 : 3회. 아 그면 선생님은 7회 졸업생이구나. 지금 보성 국민 학교는 그 이후에 전쟁 4.3사건 이후에 지어진거죠? 전쟁 그 전쟁 끝나고?

구술자 : 음.

면담자 :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옛날 보성 국민 학교

구술자 : 예.

면담자 : 아 그래서 7회 보성 국민 학교 졸업생이신데 그면은 어렸을 때 정말 힘들었는데 형님하고 누님하고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되요?

구술자 : 몇 살 차이 안 났어. 다섯인가..?

면담자 : 형님하고?

구술자 : 음.

면담자 : 아 아버님은 용기를 하셨나요?

구술자 : 직접 만들지는 안하고 자기네 글을 했지.

면담자 : 물주로서?

구술자 : 음.

면담자 : 기억나요? 아버님이 물주 했던 거?

구술자 : 했지. 학교 갔다 오면 그거 흙 갖당[가져다가] 뭉치고 했지.

면담자 : 아 집에서? 으음.

구술자 : 옛날에는 학교 갔당 공부가 아니고 일을 해야 해여.

면담자 : 음 그럼 뭘 했어요? 주로? ..아니. 아니 선생님이.

구술자 : 아니 계난[그러니까] 용기 할 때는 흙을 뭉쳐주고, 꺾아주고 하고 밭농사도 가면 도와주고.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그때는 옷도 갈옷을 전부 입었고.

면담자 : 네.

구술자 : 민영옷은 고급옷으로 해가지고 학교 갈 때만 입고 갔다 와서는 벗어동[두고] 갈옷 입어가지고 신발은 초신. 초신 신었고. 검은 고무신은 학교 갈 때만 신었고. 그렇게 했지.

면담자 : 아 그러면은 흙도 깎고, 그니까 이미 흙 깎고, 흙은 그면 흙이랑 빨감.

구술자 : 그런 거는…….

면담자 : 어디서 가져온 거?

구술자 : 우리 어린 땀 다 사서 했지. 사람 불려서.

면담자 : 아 사람사서. 그면 흙은 퍼오는 사람 따로 그면 늦해가지고[일손을 빌리다는의미].

구술자 : 아니 늦빌어[사람을 쓰다]가지고 사람 몇 사람 빌어가지고 강[가서] 파왔지. 일당 주고.

면담자 : 아 일당으로 해가지고. 그면은 그렇게 해서 뭐 보통 맨날 옹기를 했겠네요? 그러면은 굴을 몇 굴, 몇 굴 매년. 매년 한 거네요? 매년. 으음. 그러면은 옹기를 언제 옹기를 언제부터 그면은 형님이 뭐냐 형님도 옹기를 만드셨다고?

구술자 : 음.

면담자 : 형님하고 나이가 다섯 살 차이예요?

구술자 : 아니. 멀어.

면담자 : 한 열 몇 살?

구술자 : 음 살았으면 여든 여덟이니까 난 일흔일곱이니까.

면담자 : 음 11살차이.

구술자 : 11살 차이정도 나겠나?

면담자 : 11살 차이정도 나니까 형님이 거의 가장했네. 가장역할 한 거 아닌가요? 가장? 아 버님과 더불어서?

구술자 : 가장이 없어요. 그땐 결혼시켜버리면 독립이 되어버리니까.

면담자 : 몇 살 때 결혼하셨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결혼하신 거? 형님은?

구술자 : 경[그렇게] 한거 같애.

면담자 : 아 빨리 결혼하셨구나.

구술자 : 음. 어려부난 잘 모르니까.

면담자 : 거의 뭐 장남역할 했겠네요?

구술자 : 장남 역할이 뭐 이녀[자기] 장개[장가]가면 이녀 집 가족 단속밖에 안 된다니까.

면담자 : 아.

구술자 : 이 돈 버는게 없어노니까.

면담자 : 형님은 그면은 옹기 만드셨죠?

구술자 : 음,

면담자 :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구술자 : 신창수.

면담자 : 신창수. 어쨌든 도공장, 도공장이었네요?

구술자 : 음.

면담자 : 그면은 형님은 어떻게 해서 옹기를 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옹기 도공장이 된 건가요?

구술자 : 모르지. 나 어릴 때니까.
면담자 : 아 어릴 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 그면은 선생님 어렸을 때 이미 옹기를 하고 있었네요? 형님은? 장가가서?
구술자 : 그랬겠지.
면담자 : 아 집에 전혀 보탬이?
구술자 : 보탬은 뭐 이녁, 이녁가족 보탬이지.
면담자 : 아 그러면은 물주로 하실 때 도공장은?
구술자 : 만드는 사람은 거의 물주 못해.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우리 같은 사람은 만날 남의 일만 하니까.
면담자 : 그면 형님은 그면은 형님은 와서 그 그릇 만드는 일은 했겠네요? 형님이? 아버님이 물주시니까.
구술자 : 음.
면담자 : 그죠? 선생님은 흙. 흙 뭐냐 깎고 그죠? 어렸을 때는.
구술자 : 그랬지.
면담자 : 흙 깎고, 또 뿔감도 뿔해가지고[일손을 빌리다의 의미], 뿔빌어서 한 거예요? 뿔감도?
구술자 : 뿔[일손, 남] 빌어서 우리 뿔감은 못하지. 어린 때니까.
면담자 : 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옹기와 관련된 일을 형님도 하시고, 선생님도 어렸으니까 조금씩 인제, 인제 거들면서 해오게 된거죠?
구술자 : 음.

직업과 일

면담자 : 그렇게해서 그면은 국민 학교 졸업 한 해가 열 셋? 열..두살. 일곱 살 때 그니까 열 셋 넷 되었겠네요?
구술자 : 열 셋 될 철인가?
면담자 : 그죠? 열 셋.
구술자 : 될까, 안 될까.
면담자 : 졸업하고는?
구술자 : 농사도 돕다가.
면담자 : 돕다가.
구술자 : 열다섯에 이걸 배웠지.
면담자 : 열다섯 살에 어떻게 배우게 된 거예요?
구술자 : 아이 뭐 해볼건 없고 게 이것이 부모 할 때부터 흙 뭉치명[면서] 봐나니까 이것이 배우면은 돈 받는게 제법 많더라고. 게서 욕심나서 한거지.
면담자 : 욕심나서. 그러면은 누구한테 사사받으신 거예요?
구술자 : 어 저...신봉염씨라고.
면담자 : 김봉염선생님.
구술자 : 신. 신.
면담자 : 신봉염. 신봉염 선생님께서로부터.

구술자 : 봉염.

면담자 : 신봉염. 그니까 그 고정순할머니, 돌아가신 고정순할머니의 그 시아주버님.

구술자 : 사촌 시아주방 될 철이지.

면담자 : 그죠? 사촌 시아버님 신봉염. 그분이 굴 대장? 굴대장.

구술자 : 굴대장은 아니었고.

면담자 : 그럼 도공장? 옹기 만드는 사람.

구술자 : 음.

면담자 : 그면은 구역리 사람이네요? 신봉염 선생님.

구술자 : 예.

면담자 : 구역리에 그 신봉염 선생님께서부터 옹기일을 시작을 하셨죠?

구술자 : 음.

면담자 : 그면은 택에서 왔다,갔다 하시면서 그때 일 그때 말씀을 어떻게 배우게 배움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서 배워서 자립을 하게 되었는데.

구술자 : 계난[그래서] 그, 그 사람은 그 물주한테 들어강[가서] 일하거든. 그 만드는 사람은 빌어가. 계민[그러면] 우리 배우는 사람은 득랑[테려서] 하젠[하려고]하면은 그 주인이 싫어해여. 막. 이 저 자기 혼자 오라고. 경해도[그렇게 해도] 막 어거지로 간 거지. 가서 그 선생이 일일이 잡아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네 할 때 토래미도 해나고 경[그렇게]하니까 눈치로 대개 알았지. 그걸 에 그 사람한테 배우다가 밥먹에 되면 점심때 그 주인하고 그 할아버지 모르게 집이왕[와서] 먹엉 [먹어서] 벌써 가면 일은 시작하지. 밥 먹으랜도 안 돼. 왜 그런고 하니까 밥을 딱 숫자세그네 쌀과주면은 요만이도 안 남아. 반찬도 그렇고. 우리 현 후엔 자리도 났는데 우리 배원, 우리 일 배우러 다닐 때 자리도 났는데 자리도 한 사람한테 딱 하나. 계니까[그러니까] 시간 넘어 불은 밥도 없고, 자리도 없고 굶는 거지. 그 사람, 나뿐이 아니고 모든 사람 다 그랬어. 밭에 강[가서] 검질맨 사람들도 그렇고, 장난 불영 먹어불른 이후에는 밥 없엉 못 먹으멍[면서] 했어. 젊은 땐 장난 불영[붙여서] 먹으면 한사람겐 다 같이 먹어불거든. 일부러. 굶길려고. 그렇게 장난해도 밥이 없어. 그렇게 배우게되었지.

면담자 : 그래서 근데 옹기일이 여러 가지 일로 합해진거 잦아요? 토림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만드는 것도 있고.

구술자 : 처음에 흙파오고부터 다음 때리는 거 흙 때리는 거부터 다음 만드는 걸로부터 다음은 빨감 준비, 또 이제 굽는 거. 구워서 파는 거. 뭐 소소한거랑 떨어도 일이 많지.

면담자 : 음. 근데 그 옹기 만드는 것을 배우, 구지 선택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옹기 만드는 일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게 그 이유라도 있나요? 옹기 만드는 일을 배운 거잖아요?

구술자 : 단지 먹기 위해가지고 하는 거.

면담자 : 그때 돈 많이 번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나요?

구술자 : 많이 벌었지. 그것이 제일 나스니까[나으니까].

면담자 : 아.

구술자 : 생활하는데서 옹기하는 사람이 쯤 나왔으니까.

면담자 : 그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그냥 뭐 차이가 좀 있었나요? 그

구술자 : 차이가 많지.
면담자 : 아 그래요?
구술자 : 많은데 그게 또 그 만드는 사람들이 돈을 벌긴 버는데 붙으질 못해.
면담자 : 왜요?
구술자 : 다 써버려가지고 .
면담자 : 아 그면은 용기 만드는 사람은 돈을 일단은 만질수가 있었네요?
구술자 : 음. 있어.
면담자 :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그 돈을 이제 저축한 사람은 별로?
구술자 : 옛날은 저축하는데도 어섯고[없었고], 저축할 생각 하지도 않고, 돈 예금할 때도 없고 손에 가지면 뭐 쓰는 거 밖에 없지. 예금해 붙면[버리면] 찾아오기도 실퍼서 [하기 싫어서] 안쓰지마는.
면담자 : 음.
구술자 : 노름한 사람은 노름도 해 불고[버리고], 술 먹는 사람은 술도 먹고. 옛날 술도 겁나게 먹거든. 한 사람에 술 한되씩 먹어 불명[버리면서], 육십, 그땐 이젠 18리터가 한되인데 옛날엔 20리터가 한되. 2리터가...참...
면담자 : 음. 그면 구역리 사람중에 선생님처럼 용기를 배웠던 사람들이 있었나요? 많이?
구술자 : 나영[나하고] 배운 사람도 서이나 있었고.
면담자 : 아 혹시 성함 기억나세요?
구술자 : 음. 하여튼 한 사람만 돌아간 다 살았지.
면담자 : 누구, 누구요?
구술자 : 나영 같이 배운 사람만 서이랐는데 에 박두만씨하고.
면담자 : 박두만.
구술자 : 또 김경홍인데..
면담자 : 김경?
구술자 : 흥. 그 사람은 돌아가 버리고. 박두만이는 저 어디 살고 있지.
면담자 : 어디?
구술자 : 조수2리. 저.....
면담자 : 조수 2리에?
구술자 : 음.
면담자 : 그 양반은 뭐해요? 그 분은?
구술자 : 지금 마늘농사해.
면담자 : 마늘농사. 박두만 선생님도 그면은 용기 도공일을 하신 거? 그 당시.
구술자 : 예. 나영 ㄹ치[같이] 배웠.
면담자 : 그 다음에 또 한분은? 돌아가셨고. 또 한분은?
구술자 : 아 서이뿐이라.
면담자 : 아 세 명.
구술자 : ㄹ치[같이] 배운 건 세 명.
면담자 : 그니까 박두만, 김경홍? 그 다음에 또 한분?
구술자 : 나.
면담자 : 아 그래서 세 명. 아 두 분은 용기로 계속했고 한분은 돌아가셨네요? 보면은?
구술자 : 아니. 돌아가 분지 경 오래지 않았어.

면담자 : 오래되었어요?
구술자 : 아니. 오래지 않았다고.
면담자 : 오래지 않았어요? 그면은 박두만 선생님은 아예 옹기를 멜라진[무너진] 뒤로는 안 하신 거?
구술자 : 안 해.
면담자 : 아 그면은 일단 농사짓고 지금 조수 2리에서 붉은 못에서 계시는 거죠? 보면은. 예. 근데 전혀 옹기 그 뭐냐 하는데는 관여를 안 하신 거 같아요. 그분은?
구술자 : 안 해.
면담자 : 박두만 선생님은 아예?
구술자 : 음.
면담자 : 으음. 왜 그랬죠? 아예 담을 쌓아버린건가? 할 생각이 없었던 건가? 박두만 선생님은?
구술자 : 음.
면담자 : 할 법도 한데?
구술자 : 할 바에야 뭐 벌이도 안되고 하나까 치워버렸지.
면담자 : 아 그다음에도 그면은 그 전혀 관여 안 하신 거? 박두만 선생님은?
구술자 : 음. 나도 도예촌에 아니면 안했지.
면담자 : 아. 도예촌 때문에.
구술자 : 음. 부락에서 안하니까.
면담자 : 음 그러면은 구역리에 그 당시에 세분이 아까 신봉염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은 거 네요?
구술자 : 아니. 둘이는 받고, 한 사람은 딴 사람.
면담자 : 딴 사람한테 받고. 그면은 구역리 사람에게서 한 구역리 분들은 거의 옹기 도공이 많았겠네요? 그 당시?
구술자 : 예. 많아요. 한 열 몇 사람.
면담자 : 아 열 몇 사람이. 규모는 적은데 마을 규모는.
구술자 : 음.
면담자 : 도공은 엄청나게 많이 나왔네요?
구술자 : 이 큰 부락보다는 더 많아.
면담자 : 예.
구술자 : 또 조건이 안 맞아도. 흠도 없지.
면담자 : 음. 근데 왜 그랬을까요?
구술자 : 몰라요.
면담자 : 어 더 힘들었잖아요? 살기가. 신평리 이런데보다.
구술자 : 아이구 힘들었지.
면담자 : 그래서 도공을 하면 돈을 번다. 이런..?
구술자 : 그런 조건이 있겠지.
면담자 : 아 그래서 구역리는 도공이 많이 나는 동네라는 그 뭐냐 그 지역이 된거죠?
구술자 : 음.
면담자 : 아 그면은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사사받은 거예요? 신봉염 선생님께서로부터.
구술자 : 나?

면담자 : 예.

구술자 : 나는 오래 받지는 않았지.

면담자 : 한..?

구술자 : 1년.

면담자 : 1년 정도. 그니까 1~2년도. 아까 잡일부터 시작했겠네요? 맨 처음에?

구술자 : 음.

면담자 : 언제부터 그뎨는 그릇 만드는 걸 배우기 시작한 거...? 들어가서?

구술자 : 나?

면담자 : 음.

구술자 : 내가 열다섯 살에 들어가니까 열여섯 살, 열 일곱살이니까 독립으로 나왔지.

면담자 : 아 열일곱 살 때부터 그뎨는 독립한 이후의 이야기부터 해주세요. 맨 처음에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구술자 : (웃음) 들어와도 그렇게 많이 만들지 못하는 거지. 이거 놀 때도, 놀 때가 반 넘지.

면담자 : 그래요? 한 달에 하면은 어느 정도 며칠? 보통 잘 될 때 그니까 17살 이후에?

구술자 : 나는 한 굴 맨들젠[만들려고] 하면은 한 한 스무날 걸리니까 거의 한달 걸리니까.

면담자 : 아 한 달..(말이 섞이는 중) 그뎨 한 사람 꺼 하면은 꽤 그 선생님이 바로 들어오지 않았나요?

구술자 : 들어오지.

면담자 : 용기로 받는다...현금으로 그때는 받았죠?

구술자 : 아 용기로도 받고.

면담자 : 아.

구술자 : 우리는 거의 돈으로 받긴 했지.

면담자 : 그렇죠. 도공은 대부분. 그러면은 용기로 받을 경우에는 얼마정도 한 몇 줄 받는 거예요?

구술자 : 몰라.

면담자 : 기억안나..하여간에 용기로 받았던 기억이 있나요?

구술자 : 없어.

면담자 : 거의 현금으로 받았죠?

구술자 : 우린 다 현금이지.

면담자 : 도공은 대부분 현금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거의..

구술자 : 4.3사건 전에는 용기로 받았다고.

면담자 : 아 그래요? 4.3사건 이후에 인제 현금으로 인제 다 받았단 거죠?

구술자 : 현금, 만들기 전에 현금줘.

면담자 : 아 만들기 전에 데려가면서..?

구술자 : 데려갈려고. 아니 데려..몇 달 뒤에 드라[데려] 갈 것도 미리 준다고.

면담자 : 그래야지 일을 해주니까.

구술자 : 그러니까 미리 다 먹어볼지. 돈을.

면담자 : (웃음) 아 그래요? (웃음) 그래서 그뎨는 거의 다 뭐 이렇게 뭐 받도 샀으면은 돈 좀 벌었을 텐데.

구술자 : 받 샀으면 벌었을건데 노름해 부렸지.

면담자 :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어쨌든 17살부터 돈을 만진거잖아요?

구술자 : 만지니까 노름했지.
면담자 :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선생님 정도면은 막 잘 만든다고 서로, 이렇게 물주들이 순서 정해 놓고.
구술자 : 그랬지.
면담자 : 그죠? 그러면 한달씩 한 물주집에 한달을 하더라도 일단은 한 일년이면은 내내 아마 돌아갔을 것 같은데?
구술자 : 음?
면담자 : 거의 내내 물주들이 불렀을 것 같은데?
구술자 : 아니. 경[그렇게] 안 돼.
면담자 : 으음. 그래서 어쨌든..
구술자 : 여기 사람 여남은 사람 만들어도 그 빨리 할려고[하려고] 외방사람도 데려다가 만들고 그러니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않지] 않지. 난 조금 만들긴 했는데 이 판 부락도 강[가서] 만들고 하니까. 인양동도 강[가서] 만들고.
면담자 : 인양동.
구술자 : 신평은 거의 살다시피 했고.
면담자 : 아 신평리에는 거의 사진 거예요?
구술자 : 또 저 북군에 월광동이런 한데
면담자 : 아 월광동까지 가신 거?
구술자 : 예. 저 구역리사람이 가서 굴 박고 거기서 굴대장을 했고, 난 처음부터 가서 만들었고. 그밭로 간 같이 가서.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겐디[그런데] 판 사람들은 월광동은 안 갔어. 나만 갔지.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나만 가고. 그쪽사람들이랑 하고.
면담자 : 아 그러면 신평리에 굴이 많았잖아요? 가마가?
구술자 : 아 신평도 세 갠가 밖에 안 되었고.
면담자 : 아 그 당시에?
구술자 : 음. 4.3사건 후에.
면담자 : 4.3사건 이후에. 음. 지금은 두 군데 남아 있는 것이 한, 두 군데 되나? 저기? 남아있는 거 하나가?
구술자 : 하나. 하나.
면담자 : 하나죠? 모양새 같은 것은.
구술자 : 것도 천장은 다 뿔라져불고[무너져버리고].
면담자 : 예. 여기 구역리것은 보존이 그래도 되어있는데.
구술자 : 아이 거기는 그 집 지슨거[지은 거] 안에 안 들어가 봤구나.
면담자 : 들어가 봤어요.
구술자 : 뭐 반 더 뿔라졌지.
면담자 : 예. 그니까 뿔라졌어도 그래도 이렇게 막 나무들은 많지 않잖아요? 막 주변에 막 뭐가 올라오진 않던데. 다른 데는..
구술자 : 아이 뭐 하난 거지. 집 지스니까[지으니까].
면담자 : 예. 집 있으니까 조금 오래 보존이 되는 거죠?

구술자 : 그 집 그거 돈 많이 든거지.

면담자 : 언제 그거 집 지순[지은]거예요? 위에.

구술자 : 오랬어요. 저게 2000년 전에 지었어.

면담자 : 아.

구술자 : 그게 옛날은 도예촌 강창언이 밖에 옹기 안 했거든. 게니까 그 사람들이 그 굴을 문화재 다 시켰고. 또 집도 그 사람이 지어야 한뎀한 ...내가지고 지순[지은]거고. 검은 굴, 노랑 굴 다 그 사람이 들어가지고 문화재 만들었고. 또 신평 것도 그 사람이 만들었고.

면담자 : 아.

구술자 : 또 저 고산드레 가는데 일곱드르라고.

면담자 : 예. 일곱도르.

구술자 : 것도 그것이 그걸 길이, 길이 가운, 그때 그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면담자 : 예. 예.

구술자 : 가운데로 딱 갈라서 북군, 남군이라. 경계가.

면담자 : 고산리 그 가마가?

구술자 : 어어. 겐디[그런데] 그걸 북군에서 몰라가지고 그걸 북군에서 이 문화재 지정해그네 관리하려고[하려고] 해냈어요. 그런데 강창언이 박물관에 이서[있었]나니까. 지역도 아울러 다 알거든. 그래서 왜 그걸 북군에서 관리하냐고. 구청직원들 하고 딱 싸워가지고 쟁[그래서] 서귀포 군청에 간 싸워가지고 그걸 넘겨졌어요.

면담자 : 아.

구술자 : 그래서 지금은 그 뒤에 공구리친계 굴 봤어요? 굴 안에?

면담자 : 음. 지나..잠깐 그때 보면은.

구술자 : 뒤에 좀 여기 산군 굴 모양[모양]으로 벨라진건데 북군에서 슬라브치듯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공구리를 다 해부렸어. 계난[그러니까] 그 굴은 문화재 굴인데 그렇게 공구리 담아 불면 안돼지.

면담자 : 음.

구술자 : ...서귀포 군, 그뎀 군으로 있을 땐데.....

면담자 : 남군. 남군

구술자 : 남군으로 있을 땐데 그걸 찾아줬는데 관리만 하고 있어가 그 그걸 공구리를 뜯어야 하는데 뜯어가지고 굴을 뜯어진데로 있으던가 보수를 하던가 해야하는데 그걸 찾아놓고 그냥 내버렸어. 풀만 베고 그냥. 그냥 내불고. 여기 상동 거 노랑 굴은 또 특히나 흙굴입니다. 원래 흥애 짠게 흙으로 짠거예요.

면담자 : 아 그래요? 돌 그게 아닌가요?

구술자 : 돌 아니.

면담자 : 아.

구술자 : 지금은 다 돌로 했는데.

면담자 : 예.

구술자 : 게니까 저거 오랜거지.

면담자 : 아 오래된 거..구역리 굴이 오래된 거네요? 그뎀은?

구술자 : 오래된 거니까 굴이, 흙이, 우린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흙이지. 이제 했으면 흙으로 안했지. 4.3사건 올라와서 한건 다 돌로 해서.

면담자 : 둘로 했구나.

구술자 : 4.3사건 올라와서는 여기서 굴 박았거든. 그 평화상회 서쪽에 보면 거기에 박았고, 저 동쪽에 하나 박았고, 두 개로 운영했거든.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4.3사건 전에는 보성, 이 저 이 구역리 서쪽에 거기도 이셨고, 요디[여기]도 이셨고[있었고], 여러군데 있었어요. 4.3사건 전에는.

면담자 : 음. 혹시 그 터들 다 기억하시나요?

구술자 : 예. 기억은 하는데 무신거는 없어. 다 멜라부러서[무너져버려서].

면담자 : 다 멜라져[무너져] 부러고. 아.

구술자 : 주인이 관리, 집 그..

면담자 : 개인 땅을 지었잖아요?

구술자 : 개인 땅을. 공유지도 팔아버렸고. 그니까 개인이 사가지고 굴을 다 멜라부러트지[무너뜨려버렸지].

면담자 : 으음. 그니까, 그니까 옛날에 4.3사건 전에 만들어진 것은 흙가마다 보니, 흙으로 만들었다보니까 이게 더 쉽게 멜라진거 아닌가요?

구술자 : 예. 그 거기가 집안에 있으니까 소나무가 이렇게 막았다고, 소나무 놔서 소나무 여기가 발 들어가면 다 이렇게 들어버리거든.

면담자 : 아 그래서 지금 터 밖에 안 남은 것이 전부다 콧자..나무들로 무성한 이우가 터들이 그것은 인제 흙굴인거죠? 옛날 것은 전부다 흙굴.

구술자 : 아니 멜라진것은[무너진것은] 돌인데 건 일부러들 멜라분거고[무너뜨린거고].

면담자 : 아 일부러 멜라분거고.

구술자 : 그 지금 문화재 된 구역리 굴은 확실히 나무가 있어가지고 거 멜라진거고.

면담자 : 음. 어쨌든 가마 여기 구역리 가마 같은 경우에는 인제 흙굴, 흙굴이죠? 흙으로 만든거.

구술자 : 계란[그러니까] 제주도 전체가 전부 굴 해놨다니까.

면담자 : 예. 제주도 전체가요?

구술자 : 음.

면담자 : 이쪽 대정만 한 게 아니라?

구술자 : 전부.

면담자 : 음.

구술자 : 동쪽이고 뭐 서쪽이고, 제주시에도 다 해나고.

면담자 : 다했구나.

구술자 : 용담가면 해난테 있어요. 용담가면.

면담자 : 근데 흙은 많이 없었잖아요?

구술자 : 아 거기 흙, 흙 파면서 다 했다고.

면담자 : 아 다했구나. 근데 대정지역만 주로 알려져 있잖아요?

구술자 : 아 겐디

면담자 : 대정이 제일 많이 했으니까.

구술자 : 음. 많이 했으니까.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그 저쪽에나 동쪽에나 해난건[했었던건] 아주 옛날에.

면담자 : 옛날에?

구술자 : 한 100년전에.

면담자 : 옛날에, 근데 인제 그게 4.3사건 이후에 60년대 까지 한것은 여기 대정쪽이 제일 오랫동안 한 거.

구술자 : 음. 다 대정쪽이고.

면담자 : 아.

구술자 : 그 저쪽 다 해 간거는 그 100년 넘은 것들이지. 게서[그래서] 그런거는 자료가 없지.

면담자 : 예. 자료가 없지요.

구술자 : 아니, 한 사람 갖고는 있는데.

면담자 : 여기 강창언선생님만 가지고 있나?

구술자 : 으음.

면담자 : (웃음)

구술자 : 그게 이렇게 시끄러와가니까 함부로 보이지도 않애.

면담자 : 음. 그니까 그때 아니 다른 논문에서도 강창언 선생님 굴 가마터 조사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석사, 원광대에서 학사 받으신 분 있잖아요? 이...이경헌인가? 이경..그분하고 같이 뭐 했던데? 이경헌인가 간에. 그분하고 같이 작업을 굴 가마터, 가마로 가지고 학위를 받았더라구요. 이경헌인가? 그분하고 같이 강창언선생님이 많이 가마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구술자 : 가마터뿐이 아니고 그 사람은 박물관에 이서[있어] 나니까

면담자 : 예.

구술자 : 도로가 어디가 무신 도로 냈고 그때는 일차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다음에 그 길도 나오고, 그래서 그게 그 사람네가 우선 뭐냐라..경행[그렇게 해서] 조사가 가설기가 되어가지고 일로하면 되겠다하면 국가에 올려그네 뭐하명[면서] 했는데. 한라산에 누구가 숯 구워난거까지 다 알아. 그 사람이.

면담자 : 그니까 숯, 숯가마까지 그니까. 기와, 기와 굴. 굴 종류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구술자 : 음

면담자 : 기와굴. 그 다음에 가마. 옹기굴, 그 다음에 숯. 숯가마.

구술자 : 음. 숯가마.

면담자 : 이 세 개가 대표적인 가마죠?

구술자 : 음.

면담자 : 아. 그면은 숯가마는 주로 한라산 쪽에?

구술자 : 어. 거의 거기이서.

면담자 : 안덕쪽에도 숯가마 있지 않았나요?

구술자 : 있지. 여기도 이서났지마는[있었었지마는].

면담자 : 아 여기도?

구술자 : 그런 건 다 끝나버렸고.

면담자 : 숯가마는 언제까지 했어요? 숯가마는?

구술자 : 숯가마는 우린 잘 몰라.

면담자 : 그 전년부터, 그 전에 한 거죠? 그니까.

구술자 : 옛날 그 감산리 하는 거 보면지금 에오십 몇 되신가?

면담자 : 음 육십 가까이 되신 거 같은데?

구술자 : 아니. 오십 몇 살.

면담자 : 아 그래요?

구술자 : 우리 큰 아들...(말이 섞이는 중)

면담자 : 아.

구술자 : 겐디[그런데] 이 뭐 하는 거는 이 뭐 하는 거는 이 팔십난 사람보다 더 알고.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팔십, 구십 난 사람 모르는 거 다 안다고.

면담자 : 음.

구술자 : 어릴 때부터 해노니까.

면담자 : 강창언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도예를 하게 된 거예요?

구술자 : 케니까[그러니까] 박물관에 있으면서 조사하는데 이것도 조사하고, 저것도 조사하는게 이 백년 전에 해난 것들 굴터가 있으면은 그걸 조사하고, 케민[그러면] 거기 파다보면 기물이 나오고. 케민[그러면] 유물이지? 기물이 아니고. 이젠 그걸 끼리 끼리 이렇게 붙여.

면담자 : 아. 일일이 떨어진 것을 깨진 것들을..

구술자 : 어. 케서[그래서] 그, 그 사람이 용담 살아났는데 우영밭에 그걸 주서다가[주워다가] 바닥에 채 놔두면은 아방은 던져 불고, 필요어신건데. 케난[그러니까] 아방이 딱 '자이[저아이 : 강창언선생지칭] 자이 두렵샤[어린거 아니냐]? 두렵샤?', 막 해났다고. 저 미쳐야 저거 하는 거지.

면담자 : 음.

구술자 : 아방이 굶는[말하는] 것이 두려야[어려야] 저거하지. 경[그렇게] 안하면 못해. 켄 그걸 붙이면서 나 거기 간 해에 가정[가지고]나와 '이거 만들어지쿠과[만들수있겠어요]?', 만들기야 하지. 겐디[그런데] 난 안 봐난[보았던] 그릇들이 있더라고.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케난[그러니까] 그거 오래된 것들이지.

면담자 : 구역리 가마에 불을 때지 않을 때가 69년도, 8년도 맞나요? 마지막 불을 땀 게. 구역리, 구역리.

구술자 : 상동은 그 옛날 4.3사건 전이 해난거고.

면담자 : 아 만들어진 거.

구술자 : 이부락안에게 70년대까지.

면담자 : 아 70년대까지. 여기, 여기서는?

구술자 : 음.

면담자 : 보성 아니면은? 보성.

구술자 : 아니.

면담자 : 구역에서?

구술자 : 구역에서.

면담자 : 아 70년대까지. 구역은 70년대 까지고.

구술자 : 음.

면담자 : 신평은 더 빨리 끝난 거 같은데?

구술자 : 어. 신평은 좀 빨리 끝났지.

면담자 : 예. 68년,9년.
구술자 : 제일 늦게 끝난디가
면담자 : 붉은 못.
구술자 : 붉은 못.
면담자 : 예. 붉은 못은 70년대…….
구술자 : 붉은 못은 여기 사람이 아니고. 육지분이 들어와서 여기 사람 하던 걸 말아가지고.
면담자 : 그 송창길.
구술자 : 음?
면담자 : 원래 여기사람, 송창 돌아가신.
구술자 : 아 송창식인 신평리고.
면담자 : 신평이고.
구술자 : 신평인데 거기[거기] 와서 살아났지.
면담자 : 아 붉은 못에서.
구술자 : 아니. 4.3사건 후에 일하다가 거기가건데는 오래지 않았고.
면담자 : 아.
구술자 : 몇 년 안되서. 저 김청길이는 그 육지사람 하던 걸 말았지.
면담자 : 김청길선생이 그니까 조수2리. 그니까 거기 붉은 못에서 인제 그일 말은, 육지 사람이 하던 것을?
구술자 : 음.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육지 사람이 처음 나무가 그 사람은 육지서 와노니까[왔기 때문에] 나무도 구하지 못하지. 게서[그래서] 그 기름으로 땀지. 폐유.
면담자 : 폐유.
구술자 : 폐유 모집하면서. 걸 하다가.
면담자 : 붉은 못에 가니까 육지에서 오신 분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고.
구술자 : 그거 이렇게 ...화력을 했는데 것도 실패로 돌아가지고 다음은 첫...모이면서 땀. 것도 안되가지고 하다가 넘겼지.
면담자 : 김청길 선생님한테.
구술자 : 김청길이도 넘겼었는데 김청길은 그걸 앓고 그때는.
면담자 : 화분하고.
구술자 : 화분을 했어.
면담자 : 그때 몇 년도였나요? 화분. 50년대 60년대 막 인기가 많았을 때가?
구술자 : 화분이?
면담자 : 음.
구술자 : 화분이..
면담자 : 선생님 도공일 할 때 화분이 인기 있었지 않나요?
구술자 : 아니지. 그 후에지.
면담자 : 아주 후에. 60년대, 70년대 되나? 70년대?
구술자 : 아니. 70년대는 안되고, 60년대는 되지.
면담자 : 아 그때 김청길 선생은 화분을 맡은…….
구술자 : 말아서 화분해서 무지 벌었다고. 그때는 그 그런 화분 밖에 없으니까. 그 빨간 거.

면담자 : 예. 흙 화분.

구술자 : 하다가 결국은 옹기 모양[모양]으로 말렸지. 플라스틱 나와부니까.

면담자 : 음.

구술자 : 하기 시작한 게 굴 시작한 거라. 굴을 시작하니 뭐 할 줄은 아나 뭐, 그 거기서 배운거지.

면담자 : 붉은 못에서? 거기서?

구술자 : 음. 거기서 굴 굽는 것도 실패. 모든 게 다 실패했어. 가스 가마 갔다당[다가] 거기서 옹기냥[놓아서] 해도 실패. 게서[그래서] 그 화분 한 거 번거 다 거기 끌어박았지 .

면담자 : 아. 미련이 많은가보지요. 옹기, 굴 옹기 하는 것에 대해서. 화분 계속 하셨으면 되는데.

구술자 : 음. 그거 했음 되었을 건데. 아니. 것도 끝났지. 플라스틱 나오기 시작하니까. 거 무거워서 쓰지도 않았지.

면담자 : 근데 미련이 남으니까 계속 옹기를…….

구술자 : 음. 할 수 없이 옹기 시작한 거지.

면담자 : 아.

구술자 : 쟁[그래서] 옹기를 배웠고.

면담자 : 누구한테 배웠죠?

구술자 : 건 잘 모르겠는데.

면담자 : 음.

구술자 : 처음에 그 사람이 육지서 와가지고 과수원을 지켰다고.

면담자 : 김청길 선생님이 육지에서 오신 분이예요?

구술자 : 음.

면담자 : 아 제주분이 아니구나.

구술자 : 여기 와서 과수원을 관리했다고. 경[그렇게] 하다가 그걸 갔지. 그 육지 사람이 걸 [그걸] 넘긴다고 하니까 글로[그쪽으로, 거기로] 가가지고 그걸 맡았지.

면담자 : 음.

구술자 : 인제 그 사람도 나영[하고] 갑장인데.

면담자 : 음.

구술자 : 해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지금 옹기로 돌아니까 옹기로 벌었는지 말았는지 나 생각엔 못벌을[돈을 못 번다의 의미] 것 같은데.

면담자 : 이름은 옹기 마을이잖아요?

구술자 : 옹기마을에서 자기가 지은거지.

면담자 : 제주 옹기 마을 하면은 거기가 다 한 것처럼 느껴져요. 옹기 이름을 그렇게 쓰니까. 옹기마을 그렇게 작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술자 : 음. 옹기마을 하면 저 울산 모양으로 마을을 맨들어[만들어] 냅[놓고] 옹기 마을..

면담자 : 근데 본인이 옹기마을이예요. (웃음)

구술자 : 본인 하나 가정[가지고] 옹기 마을하면…….

전통옹기 복원과 소생

면담자 : 울산에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구술자 : 아 울산은 나가 에 한 이십일 작업했지.

면담자 : 몇 년도에 그니까. 엑스포?

구술자 : 엑스포. 저 거기 전통용기 엑스포를 한달 동안 하거든. 거기는. 가서 거기는 우리나라 그 문화재하는 사람은 전부 갔어.

면담자 : 음 .

구술자 : 나가 한 번에 간 게 아니고 한 십오일이나 며칠해서 보내동[두고] 또 탄 사람 들어오고, 탄 사람 들어오고. 그걸 다 관리 못하니까.

면담자 : 음.

구술자 : 그렇게 해서 갔다 오고, 또 여주는 대학교에서 초청 받아서 갔는데 거기는 세계도자기 축제.

면담자 : 여주. 맞아요. 도자기 축제.

구술자 : 80일 동안 해요. 80일 동안.

면담자 : 예.

구술자 : 도자기 축제할 때. 켄디[그런p] 용기를 그 세계 도자기 축제를 하는데 80일 동안 하는 것을 탄데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다 도자기 계통으로 나온 사람들인데 우리만 용기한 사람 불렀어. 나하고 경기도 오부자.

면담자 : 오부자집.

구술자 : 거기 넷째 딸들 그거 하고, 둘만 가고 우리나라. 나머진 다 외국 사람들만.

면담자 : 음.

구술자 : 외국사람 들어오니까 난 물레작업 인줄 알았더니만 물레 작업이 아니고 손작업. 손으로 만드는 거. 공작새도 뭐이고.

면담자 : 도자기, 약간의 도자기로.

구술자 : 도자기지. 도자기.

면담자 : 음.

구술자 : 켄디[그런데] 전부 외국서 열 개 나라 왔는데 다 그거. 물레작업 하는 사람은 없어. 우리뿐.

면담자 : 음

구술자 : 경하명[그렇게 하면서] 거기도 강[가서] 거기는 오래 작업을 못했어. 막 오래 해 달라고 해도 우리가 모든 게 맞질 안해 가지고. 도예촌에 있을 때니까. 오래하면 도예촌에도 이 이미지가 나빠져 버리고. 거기 오래 살아버리면.

면담자 : 8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원래 80일 간?

구술자 : 80일인데 우린 한 15일 밖에 안했거든. 나머진 팀들이 막 강제로 밀어넣 와버렸지.

면담자 : 음 그때가 2000년대 말이었네요? 2000년대 중반 후반? 20..07년?

구술자 : 아니. 2000년도는 넘었지. 나 문화재 받은 다음에 가난[갔으니].

면담자 : 그니까 이천...(말이 섞이는 중) 일년도에 받았으니까. 2007년도, 8년도 민속 문화의 해가 2007년도 었거든요?

구술자 : 7년도는.....

면담자 : 전에?

구술자 : 전에.

면담자 : 아 2007년도 전에, 그렇게 해서.

구술자 : 켄디[그런데] 거기서는 우리 흙도 여기서 가정가고 흙도 여기서 가정[가지고] 가서 참 허벅도 만들고 했지. 계난[그러니까] 허벅 만들면은 이상하다고. 이런 게 뭐이냐고. 하명[하면서] 우리 제주도 그 낮에는 옹기 만들고 밤에는 호텔에 가서 설명하는 거지. 허벅에 대한 거. 세계적으로 그거뿐이니까.

면담자 : 음.

구술자 : 계민[그러면] 우리나라 기자 제주도 기자도 나왔어. 기자하면 외국 기자가 무지 많아. 경하민[그렇게 하면] 밤에는 그거하고 낮에는 일하고.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그렇게 했지.

면담자 : 15일 동안을 거기서. 그렇게 두루두루 보시면서 이 차이점이 뭐예요? 제주옹기를 발전시킬려면은 그 울산이라던지 여주라던지 제주도는 그러지를 않은 거 같아요?

구술자 : 육지는 거의가 자기 식구만 하거든. 우리 저 옹기를. 이 여기 조수도 그렇고, 조수 2리도. 원래는 자기 식구만 해야 하지. 이렇게 저 도를 믿거나 부락을 믿거나 하면은 우리 구역리 모양[모양]으로 나 모양[모양]으로 된다고. 이 모든 게

면담자 : 아.

구술자 : 목에 힘주다 보면은 집안끼리는 경[그렇게] 못하거든. 아버지 명령 내리면 그대로 따라가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지. 부락으로 하면은 이장명을 따라야하고 도에 하면은 심의위원, 저 국장, 담장 이런 사람들 따라가야지. 모든 게 게고 전수생 들어올 수가 없어. 전수생이 요즘 먹고 살기가 바쁜데 이거 배울려고 공짜로 일 안 하거든. 대학생들 들어와. 들어왕[와서] ‘얼마 주겠습니까?’ 거부터 묻는 다고. 계민[그러면] 도에서 돈 안주는데 강창언이가 그렇게 주지 못하거든.

면담자 : 음.

구술자 : 계난[그러니까] 강창언이 백만원 맞춰주겠다하면 안해.

면담자 : 음.

구술자 : 일하는 걸 백만원 맞춰주겠다. 경행[그렇게 해서] 그거는 강창언이는 백만원 맞춰 주면은 이거만 배우는 게 아니고 자기일도 해줘야하거든. 돈 내치니까. 게서 이게 전수가 안 돼.

면담자 : 근데 육지는 아까 울산은 그면은 가족단위예요?

구술자 : 다 가족이지.

면담자 : 가족이구나. 울산 옹기마을 그니까.

구술자 : 옹기마을은 시에서 만들어 준거고.

면담자 : 시에서 만든 거고.

구술자 : 그 구역리 부락 모양으로 맨들아[만들어]줘서 굴도 그 안에 다 박아주고. 집도 만 들어주고. 계니까 자기꺼 자기가 만들 영[어서] 파는 거지. 경[그렇게]하다가 행사만 그 안에서 할 때 같이 해줘.

면담자 : 음.

구술자 : 계니까[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수작업도 아니고 보니까. 가다에 놔서 딱 떠서 두 개 딱 붙여. 경[그렇게]해서 하면은 이 수공비도 얼마 안 하거든. 잘도[아주, 많이] 싸. 여기서 오십만원짜리면 오만원, 십만원이면 사.

면담자 : 음.

구술자 : 쟁[그래서] 유약 칠하고. 경[그렇게]해서 부산, 어디 뭐 대도시로 이 반출시키는 거지.

면담자 : 맞아요.

구술자 : 케니까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여기서는 이 제주도 흠뻐[조금]한테 뭐 누가 사가? 나 생각인 저거 돈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경[그렇게]해도 뭐 시작해놓은 거 난 하긴 하는데.

면담자 : 음.

구술자 : 문제가 많지.

면담자 : 여주도 아까 오부자집. 가족을 중심으로 전승이 이뤄지는 거죠?

구술자 : 계난[그러니까] 이게

면담자 : 시에서 그 다음에 인제 뭐 이렇게 도라든지 이런데서 지원을 해주는 시라던지. 그죠?

구술자 : 음.

면담자 : 그런 식. 아까 옹기마을 울산의 경우에도 가게로 보면은 전승을 하는데 이게 마을로 시에 군에서 지정해줘서 이제 도움을 주면서 하나의 어떤 지역을 잘살게 하기 위한.

구술자 : 음.

면담자 :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구술자 : 굴하는 사람들 다 글로[그곳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

면담자 : 그니까 우리 거기 뭐냐 저지에 그 예술인 마을처럼 옹기마을 해가지고 굴하는 사람 전부다 글로 모이게 하는 거죠.

구술자 : 음. 경[그렇게]해야하는데 조수2리 이녀[자기] 혼자만 가정 옹기마을하면은 뭐.

면담자 : 제주는 거기가 옹기마을 이에요. 실제로.

구술자 : 동네 영어마을에 가다 보면은 무공해 파는 집이 있어. 켄디[그런데] 그 무신 마을로 만들어버리니까 간판을. 어떤 사람들은 거길 찾아가지 못해. 부락인줄 알아가지고. 마을이랜 하니까. 간판도 조심해야 해.

면담자 : (웃음)

구술자 : 찾당[찾다가] 그냥 가버려.

면담자 : 근데 왜 제주도는 이렇게 가게로 이렇게 자기 아들, 딸한테 안 물려주게 되었나요? 다른데는 지금 울산도 가게로 가고 저기 여주도 오부자집 아까.

구술자 : 계난[그러니까] 그 제주도는 특한게 부모하고 사는 게 없거든. 옛날부터. 장가가면 그냥 바로 이 내보내볼거든. 자립하라고. 요 옹기도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라. 육지는 아니 다섯 가족이 되도 다 벌어다가 바치면은 어명이 계산해서 뭐 쓰당[쓰다가] 남으면 용돈 조금씩 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여기는 옛날부터 자립하다보니까 자기식구만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

면담자 : 그니까요. 제주도는 의외로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이 그게 인제 가족의 특징하고도 관련되네요? 여기는 분가주의. 분가.

구술자 : 분가.

면담자 : 그러다보니까 지금 가게 전승이 안 되고 지금 허벅장도 실제 옹기장으로 된 것이 다 따로, 따로 된 거잖아요? 것도 가족구조랑, 제주의 가족 특성이랑도 관련이 있어있네요.

구술자 : 아니. 그거는,, 그거는 말하자면 경[그렇게] 안할 걸 한 거지.
면담자 : 그건 안 할 걸 한 거죠. 그니까.
구술자 : 계난[그러니까] 이거 만듦으로써 일이 덜어내기도하는게…….
면담자 : 전승하는게 더 힘들어지는거죠.
구술자 : 힘들어지는 거지.
면담자 : 다 따로, 따로니까.
구술자 : 음. 이렇게 따로 안 해도 다 되거든.
면담자 : 음. 그러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맨 처음부터 지금 아까 가족 때문에 이렇게 전승이 안된 거잖아요? 가게 전승이.
구술자 : 음.
면담자 : 그죠? 그러면은 전통, 그러다보니까 불하는 사람 따로, 이런 식의 것들이 아마 가족하고 관련이 되어있나요? 보편은 원래 하나가 한명이 다 할 수도 있잖아요? 한 집에서.
구술자 : 한 집에서 하기는 힘들고.
면담자 : 왜 제주도만 국한된 걸까요?
구술자 : 그 굴 굽는 게 육지불 하고 틀려가지고.
면담자 : 어떻게 차이점이 뭐예요? 그면은?
구술자 : 굽는 게?
면담자 : 예.
구술자 : 육지는 그 거의 토막나무로 때거든.
면담자 : 장작으로. 그니까.
구술자 : 장작으로. 처음 시작하면 끝날 때 까지 장작이거든.
면담자 : 예.
구술자 : 여기는 그런, 여기는 굴을 이렇게 박으면은 예 여기 천마가 있어. 불가리는 천막.
면담자 : 음.
구술자 : 천막 옆으로 불이 올라가게 되어있어. 양쪽으로.
면담자 : 예.
구술자 : 굴 바트면은.
면담자 : 부장. 입구. 입구.
구술자 : 음. 부장으로. 부장 조금 지나가면 이렇게 칸막이가 있거든.
면담자 : 예.
구술자 : 육지는 그런게 없어. 전부 하나로 되니까. 계니까 그 뭐라고 하나? 저 육지는 그렇게 하나도도 되고 토막불도 이서. 토막불. 요만씩 해가지고 이디서[여기서] 토막, 토막, 토막. 계민[그러면] 일로 불때. 여기서 앞에서도 때고. 경하면은 힘들게 하나도 없어. 우리 제주도도 경[그렇게]하면 될 건데 모르긴 몰르지.

용기 불 때는 과정

면담자 : 왜 제주도 불은 틀리게 되었을까요? (웃음)
구술자 : 그니까 제주도는 옛날부터 저렇게 해오니까 그걸 지금 해가는 거지. 육지추록[처럼] 안해나니까 모르지.

면담자 : 아 그렇게 되다보니까 제주도식 굴이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보면은.

구술자 : 케니까 그 육지불은 정[그렇게]하니까 나무로 때도 불이 저 뒤에까지 잘 나가고 그 구멍이 장작구멍 그 박세기구멍이라고 하는데.

면담자 : 독새기[달걀] 구멍.

구술자 : 그게 큰 굴은 스물일곱 개, 한 스물다섯 개 이렇게 되거든. 케민[그러면] 앞에서 그렇다보면 그 불이 뒤에까지 불이 나가줘야 하거든.

면담자 : 근데 안 나가는 거죠?

구술자 : 케니까[그러니까] 장작으로 때면 못가. 힘에 버쳐.

면담자 : 아.

구술자 : 게서[그래서] 이파리 있는 걸 질러줘야 후루룩, 후루룩 올라가거든. 이파리 있는 거. 케난 최고는 소나무가지로 한 거고. 두 번째는 아무나무라도.

면담자 : 선비낭. 선비낭은

구술자 : 선비, 선비랜 한개 가시..이저

면담자 : 가시나무?

구술자 : 탈낭 같은 이런 잡낭, 잡 가시 있거든.

면담자 : 잡목.

구술자 : 잡목. 가시나무 같은 거. 이 옛날 소뻍일려고[먹이려고] 양식 그 초를 비어났는데 줄 빈데 가면은 잡목으로 그런게 막 생겨 올라오거든.

면담자 : 음.

구술자 : 그러다보면 꽃자왈 되어버리거든.

면담자 : 음.

구술자 : 케난[그러니까] 그걸 비어서 이제 때고 했거든. 그니까 알기 쉽게 말할려면은 육지불은 천천히 때도 올라가고, 케니까 여러 날 때지.

면담자 : 우리는 보통 삼일이죠? 우리는?

구술자 : 여기는 삼일이 아니고 하룻밤 하루면 옛날은 끝났어. 지금도 삼일 하는게 버쳐서 [힘들어서] 삼일 하는 거지.

면담자 : 하룻밤 하루.

구술자 : 왜 그런고 하니까 지금 삼일하는 거는 삼일에서 사일 갑니다. 지금. 아까 모냥[모양]으로 50%는 굵은 나무로만 때거든. 그 장작으로만. 원래는 예 한 두시간, 세시간만 그걸로 때고 나머지는 나무 이파리로만 뺐거든. 옛날은 이제는 버치니까 그걸로 50%를 때여. 케면은[그러면은] 이 50% 때는 게 50% 때다보면 힘이, 굴이 길어노니까 불이 빨리 올라가야하는데 못 올라가. 케민[그러면] 앞에거만 못 견뎌서 저 다리 아픈 할망들 모양으로 주저앉아 불거든[버린다]. 케민 그것에 가려간 불은 더 안올라가. 게서 지금 도예촌이고 어디고 하면은 삼십프로 오십프로 나오지 못해. 케민 그것에 자본들어가는게 이사람들이 자기만 다 못하거든. 나무도 사와야고. 전부 사당 하는 겁니다. 케민 자본이 한 오천만원, 칠천만원 들어가. 이 굴 한 굴 구워내는데. 하루 10%로 가져가지고 뭘 장사를 하겠습니까? 본진도 못 뽑는데 난 돈 벌엄땀[번다고] 해도 난 이해가 안가.

면담자 : 음.

구술자 : 거기서 중간에 하는 것은 뭐인고 이 도자기 계통입니다게. 컵 같은 거. 이거는 불로 못 굽거든.

면담자 : 음.

구술자 : 컵 같은 거 저. 다기. 다기 그거 요만씩한 잔 붙여그네 세 개 팔고 다기 하나 붙으면은 25만원에서 30만원인가

면담자 : 강창언 선생님네도 팔잖아요.

구술자 : 강창언이가 그거 특합니다. 다른데서 원래는 못하게 된겁니다. 강창언이가 강 들어 앓아부난 거지. 옹기도 강창언이가 강창언이랍니다. 옛날 강창언이 아니면 옹기가 태어날 수가 없지.

면담자 : 맞아요.

구술자 : 강창언이만 몇 년을 했지. 게서 저 굴박을 때도 제주대학교 굴이라고 했습니다. 박물관에 있으면서 굴을 박으니까. 그 박물관 나와서 굴 박은게 아니고. 거기서 굴 박앙 일하면서 그만뒀다고. 그...하면서. 그니까 대학교에 굴이라고 했거든. 그때. 알고보니 강창언이던데.

면담자 : 음.

구술자 : 송창식이 죽어본 사람 까지는 대학교.....

면담자 : 대학교에서. 예.

구술자 : 대학교인줄 알았어요.

면담자 : 예.

구술자 : 나가 들어가기 시작하난 강창언이 만나기 시작하난 아닌 줄 알았지.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경[그렇게]해가지고 지금 그 나무로 때는 게 우리 여기서는 저 토막나무로 장작도 아니고 토막나무로입니다. 나무 잘라난 거 파다가 이만씩한거로 때는데 처음에는 굴 들려가지고 고스락을 고스락으로 그때는 불이 그 해난 고스락. 장만해난.

면담자 : 고스락.

구술자 : 그것을 부장에 이빠이 담아놔가지고 불을 붙여서 위에 부채를 딱 더껴[덮다]. 게민 건 뒹하는고 하니까 그릇이 이 한굴 만들어 놓으면 뽏뽏하게[따뜻하게] 맨들어[만들어]지는 거라. 온도를 맞춰주는 거지. 온도를. 여기 있다가 굴에 들어가면은 온도가 딱 틀러부러. 게민[그러면] 그걸로 맞춰주는 겁니다. 온도를. 게민 또 나무 그 다음에 밤에 정했다가 뒷날은 나무로 때거든. 아침되면은. 나무도 한 세 시간. 세 시간 때는 것도 이온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온도를 맞추는게 아궁이에서만 때거든. 나무토막을. 안에 들어가면은 안되거든. 게서 차츰, 차츰 들어가야. 뜨거와질 수록 들어가야. 전기 가마에, 전기 가마도 그럴겁니다. 이 그 저 이 시간을 맞춰가지고 자꾸 올릴 겁니다.

면담자 : 예. 맞아요.

구술자 : 그런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게면은[그러면은] 에 나무로 한 십십분 한 세시간쯤 때면은 다음은 화력 있는 걸로 하거든. 이파리 있는 거. 게면은 이 불 올라가는 소리가 조그만한 태풍소리 됩니다. 우르르릉, 우르르릉, 이거 불 안들여 놓으면 조용하고. 불 집어 넣으면은 소리가 나. 우르릉, 우르릉. 불 올라가는 소리가. 게면은 뒤에 막 가면은 굴 밖에다가 불 팍팍 나와. 경하면 그때는 아 불 터졌다 해가지고 이젠 장작질 시작합니다. 그 독새기[달걀] 구멍으로.

면담자 : 예. 독새기 구멍으로. 이제.

구술자 : 게서 굴 들이는 쪽으로는 독새기 구멍이 두 개가 없고, 저쪽으로는 두 개가 더 있

어요. 건 빛을 의미하는 고 하니까 굴대장이, 굴대장이 아니고.

면담자 : 불 대장.

구술자 : 불대장이 그걸 열어서 확인합니다.

면담자 : 음.

구술자 : 장작질 하게 되었다. 안되었다. 그걸 보고, 봐서 이제 불대장 자기 혼자만 집어넣지. 집어 넣었다 막아놓은 다음에 이제 되었다 하시면 양쪽으로 해줍니다. 일로도 장작질하고, 이쪽으로도 장작질하고.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경[그렇게]해서 그거 맞추는 건데 이제 사람들 저 박기종댄 ㄹ람주마는[말하고 있지만] 절대 못 맞춥니다.

면담자 : 그니까. 그건 경험도 중요하고.

구술자 : 첫째 경험입니다. 굴은. 이게 굴 박는 것도 경험이고 굴 박는 거는 한번 굴 박는 거만 봐놓으면 다 하게 되었습니다. 둘로 한 거니까. 이걸 담 쌓을 줄 아는 사람은 다 할 줄 알아. 계란 그건 뭐 한 십오일이면 다 전수 받을 수 있어. 계도[그래도] 용기 만드는 건 빨라야 일 년, 경[그렇게]안하면 이년. 그렇게 해야 이년해도 확하게 누구 저 모르는 사람 거 말양[아서] 못해. 왜 그런고 하니까 이게 만드는 사람은 계란[그러니까] 구경 온 사람은 다 같은 걸로 보거든. 우리가 보는데 굴, 용기 될지, 안될 지 알거든. 계민 안되었다 한건 굴에 들어갔다 하면 못 건디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안된거는. 털어진 거, 서툰 사람 만든 거는 비틀어지거든. 비틀어지면은 어디서 그런고 하니까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은거라. 계민 불 이렇게 밀다보면 얇은 거는 이렇게 들어앉아볼거든. 계서[그래서] 하나 들어앉으면 좋은데 하나하면 몇 개를 밀어버려. 그 용기가 한 다섯 개 높이로 놓으니까. 다섯 개 높이하면 이렇게 높거든.

면담자 : 제일 밑에가 쌓는 방식이

구술자 : 어. 밑에 거 주저앉으면 전부 같이 밀어버려. 저 밑에 쓰러지듯이.

면담자 : 음.

구술자 : 계서 그 아무라도 맨들민[만들면] 되카부댄[될까봐] 해도 계산상으로는 돼지. 절대 안되는 겁니다. 계서 이 굴이런 한게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일년 내내 하시면 80% 나오고, 80%, 90% 나오고, 하다가 그때도 장마철 되면 자동으로 묶거든. 장마가 그때는 심해가지고. 누면은[습하다는 의미] 들어 가젠 먼저 끝난 순서로 황시한테 연락하거든. 계면[그러면]은 그때 걸리면은 안 귀버려. 안 구워굴면 이젠 어떤고 하니까 계에서 한 굴을..

면담자 : 가마계에서.

구술자 : 계에서 만들어가지고 희생으로 들어갑니다. 거 샅 받기 위해가지고. 자기네가 들어강[가서] 희생을 하영 건 버리는 겁니다.

면담자 :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구술자 : 음.

면담자 : 굴이 인제 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불을 좀 붙여야 하잖아요?

구술자 : 어.

면담자 : 그러기 위해서 가마계에서 먼저 아.

구술자 : 어. 경해서 그 다음부터 들어가면 한, 한 굴하면 한줄을 받던가 이렇게 그릇으로

받던가. 게니까[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문제되는게 아니고 굴이 저것들 떠들어봐야 일 년에 한, 두 굴이거든.

면답자 : 6~7천 들어요?

구술자 : 예. 경헌데 자기가 몇 굴 구워내고라, 몇 굴 구워내고라 하나 계산이 안되는 겁니다. 나 영 모르면[말하면] 욱할 소리 같아도.

면답자 : 예.

구술자 : 절대 맞지 안할겁니다. 게서 에 즈금것들은 가스 가마에서 구워도 굴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들 하지마는 우리는 보면 다 알아지거든. 그 굴에서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날아가는 재도 붙어요. 재가. 흙도 붙어고. 자연으로 떨어진 흙.

면답자 : 으음.

구술자 : 이 깨끗한 거는 게스[가스] 가깝니다. 깨끗하게 나온 건. 그것은 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유약을 흙에서 만들기 전에 조합하는 수도 있고 육지서는 만들어낸 이렇게 둘러면서 한 거는 확실히 알아지는데 흙에 한거는 잘 모릅니다게.

면답자 : 가마에 모양이라던지 이게 육지가마랑 다르다는 거죠?

구술자 : 음. 달라.

면답자 : 그래서 인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가마가 정말 중요하네요? 굴이.

구술자 : 음.

면답자 : 굴 자체가?

구술자 : 게난[그러니까] 이추록[이렇게] 해도 될건데 옛날 방식으로 하는게 이렇게 되는 거겠지. 육지서도 보니까 토막굴은 이렇게 연통도 세우고 했던데 그 오부자는 여기 비슷하게 하긴 했는데 이 천막이 없어. 앞에 부장하고.

면답자 : 그게 없어요?

구술자 : 음. 그게 없어. 보니까 밑에 그 옛날 온돌방식으로 났더라고. 글로도 올라오게

면답자 : 음.

구술자 : 불 살르면 글로 올라오게. 게니까 그 거기 굽는 건 안 보니까 모르는데 굴 우리 간 때 보니까 굴 다 구워서 널려는거 있더라고. 널려는 그거 구멍으로 보기만 했는데.

면답자 : 음.

구술자 : 좋은 말로 여기 사람들은 굴대장, 불대장 이렇게 시킴지마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거 지금 말하자면 보조금 노리는 식밖에 안 돼.

면답자 : 너무 세분화, 그러다 보니까 전승체계, 전부 각각의 이뤄지다보니까 오히려 전승이 안 돼.

구술자 : 안 되는 거. 이렇게 부락으로 주민[주민] 잘 될까부덴[될까봐] 부락은 더 안 되는 거. 이거는 절대 개인아니면은 끝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게.

면답자 : 게니까 싸우기도 하고, 그니까 개인으로 가버리니까 지금 이게 조금 더 이렇게.

구술자 : 차라리 은숙이한테 그거 쥐버리면은 거기는 운영이 돼. 이렇게 부락에서 하면 싸움밖에 안 돼. 전수생을 뭐 부락전체 전수생을 써집니까? 거기서 저 돈 들어가는 거 도에서 해준덴 해보야 굴 박을 때 해주고 지금은 마을 가꾸기로 나와가지고 걸로 투자해실 겁니다 마는 마을 가꾸기도 그런데 불영[불여서] 안되는 겁니다게. 나는 이거 법관은 아닙니다마는 나 계산으로는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예.

면답자 : 음.

구술자 : 도지사한테. 왜 말도 안되는 것에 마을 가꾸기 돈을 투자했냐고. 새로 나온걸 뭐 맨들아[만들어] 가지고 농산물이나 개조해가지고 파는 거 이런 것을 붙여 줘야지 저런 썩은 돈에 강[가서] 불타는 돈에 강 붙여줘분거 난 문화재라도 진짜 잘못하는 거라고 난 봅니다게. 특히나 제주도 돈이 없는데 이렇게 낭비하게 쓰면은 아까 그 나가 문화재 심사보니까 이사람 뒤에 나가는 돈이 엄청나. 조교, 장학생, 거기 그 외에도 또 이서마썸[있어요] 굴제, 굴제도 엄청나게 나갑니다. 돈. 굴제 하면은 사람들은 굴제하면은 이 돈만 타당 쓰는 걸로 알거든. 원래는 굴제 한번 받으면은 돈을 좀 많이 탑니다게. 게민[그러면] 이걸 계속 이어그네 활동을 해야해여. 옹기도 만들양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걸 돈 타당...먹어부는 거지. 어디서 따지는 데도 없고, 나 검찰에 강[가서] 앉아서민 이걸 다 발라놓겠는데.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게. 녹음에도 들어가도 좋은데 역사문화를 죽이고 있다. 역사 문화는 올바르게 학생들에게 물려줘야 역사지. 중간에 이렇게 공무원 백, 이런 백 해가지고 가짜로 만들면서 거 해놓으면은 나 같은 사람 바른 말 하면은 이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학생한테.

면답자 : 예.

구술자 : 이게 어느게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저 위에 할망 당이라고 이런 거 있습니다. 할망당. 대정읍에서 양원가가 걸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던 하거든. 알고는 있는데 확실히 모르는 거는 저거 어떻게 생긴거까지 다 알아예. 경해도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거든. 이거 딱 사람한테 물어야합니다. 하명 이렇게 해야지. 이걸 뭐 아닌 것도 기랜 헨 만들면서 이렇게 저 학생들한테 해놓으면은 차라리 안 한게 제주도에 이거 끊어부는게 나사. 차라리.

제주 전통 옹기의 축제화와 문화유산화 과정(1)

면답자 : 그러면은 저희가 울산에 옹기마을 이제 옹기, 울산? 엑스포 있잖아요? 거기랑 여주에 그 도자기 엑스포 도예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런쪽으로 발전시 킬려면은 그쪽은 잘되는데 문제가 있든 없든 잘 되는데 왜 여기는 이게

구술자 : 게난[그러니까] 아까 다 곤지[말하지] 않았습니까? 지주가 누게냐. 도냐, 개인이냐. 개인이 하면은 잘 됩니다.

면답자 : 개인이 하는 것에 관이 지원해주는.

구술자 : 예. 그렇게 하면은 잘 되는데 제주도는 개인이 하지 못해.

면답자 : 음.

구술자 : 육지서는 쪽하게 그렇게 내려오니까 하는데 여기서는 개인한테 맡기면은 다 먹고 치워버려.

면답자 : 음.

구술자 : 그렇게 못 나가. 그 여주 그 오부자네도 싸와가지고 큰 아들은 독립 행[해서] 나갔어요. 결국은 좋지 않아도 같이 살면서 하거든. 지금 저 조수2리도 마찬가지로.

면답자 : 싸움 나가지고 다.

구술자 : 거기도 딸하고 안 좋아. 게서 가 허브 농장에 앞에 식당 만들때 옹기를 갖다 쪽하게 전시를 해 놨다고. 거 구겨지면서[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다 없어져버렸어.

면답자 : 게니까.

구술자 : 식당만 하고 있어요.

면담자 : 식당은 딸이 딸[딸]이 하는 거?

구술자 : 딸이. 가이가 나 봐지면 놀러옴쨌[놀러오라고] 하긴 하는데 계난[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렇게 부락으로 해도 부락사업도 안되고 이젠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거 저 그 정근이런 한 아이 들어노니까 이젠 굴 맨들앙[만들어서] 굽는 게 아니고 저게 감사에 걸렸습시다. 저거 3년을 녹정내부니까. 감사에서 돈을 회수해라. 일단 저걸. 계난[그러니까] 처음에 구역리로 주는 거 자체가 잘못입니다게. 도에서. 운영이 안돼. 게서 저거 지금은 이제 전수생을 모집한다고 행 부락사람을 모집해네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두 번 이렇게 하는 체만 하고 있거든. 이걸로는 전수가 절대 안됩니다게. 매일해도 전수가 안되는데.

면담자 : 그러니까이.

구술자 : 그래서 이런말은 안됩니다 또.

면담자 : 그니까 우리는.

구술자 : 아난 용기에 대한 것만 오늘은 딱 곤젠[말하려고] 했는데

면담자 : 그러면은 일단 말 돌려서 그러면 인제 그쪽처럼 안되는 것은 개인 중심의 가계 전승, 전수 체계가 일단은 기본으로 되어야 거기에 도라든지 관이 지원을 하는 이런 체계.

구술자 : 계난[그러니까].

면담자 :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구술자 : 계난[그러니까] 이 저 굴제니, 뭐 행사비니 이런 거 주는 게 아니고 전수생을 살릴려면 전수생 봉급을 줘 줘야해여. 경[그렇게] 안하면 다 오늘은 내라도 밥 굶어 있는데 거 배우젠합니까? 우리는 옛날에 할 수 없이 그거 밖에 없으니까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노가다 할 때도 없었어요. 옛날엔 일 빌영 하는 사람들이 밭일 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했지만 이제 아이덜 대학생 나와그네 이거 저 그냥 공짜로 몇 년 하랜하면 합니까게.

면담자 : 그니까요.

구술자 : 할 수가 없는 거지.

면담자 : 예.

구술자 : 계난[그러니까] 이런, 이런데 지원해 주지말고 그런 썩은 돈들을 이런데 학생한테 지원을 해줘야지.

면담자 : 오히려.

구술자 : 예. 그런데가면 썩은 돈이거든. 학생한테 가면 진짜 좋은 돈이고.

면담자 : 근데 여기 전수관 지원에 마을 지원해 주게 된 것은 아마 감사에 걸리고 계속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마을 가꾸기 일환으로?

구술자 :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마을 가꾸기로 지정이 된 모양입니다. 계난[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하는 모양인데 마을 가꾸기도 그렇게 투자 행[해서] 안돼주게.

면담자 : 3년, 3년인가? 아마 3년인가 그게?

구술자 : 경[그렇게] 될 겁니다.

면담자 : 예. 그니까. 3년 동안은 매년

구술자 : 지원해주는.

면담자 : (웃음) 해서 그러면은 일단은 그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저기 저지 예술인 마을

처럼 일정하게 정해놓고 여기 옹기 하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도 들어와서
여기 마을을 인제 살리는, 마을을 옹기 마을로 가져가는.

구술자 : 계난[그러니까] 이 옹기는 그 하는 사람이 제주도에 없습니다. 거 육지분들은 있
지마는 그런 사람들 들어오젠 하면 들어올겁니다.

면담자 : 외부에서 들어오게 해서 오히려 예술인 마을처럼 저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구술자 : 차라리 그게 나올지도 모를 겁니다. 이..이 지금은 전통옹기라고 해가지고 옛날 옹
기 해난 사람으로만 일시적으로 도에서 취급하고 있거든. 겐디[그런데] 그 사람들
은 나이로가면 다 돌아가게 되었지.

면담자 : 그니까. 그니까. 오히려 내부 체계로 가다보니까 싸우고 막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
다보니까.

구술자 : 음. 차라리 도가 뭐하나 지정행[해서] 도에서 관리하고. 저 울산 모양[모양]으로
마을을 맨들아[만들어]가지고 따로 이 구역리 부락에 만들 게 아니고 따로 그

면담자 : 그죠. 예술인 마을처럼 저기

구술자 : 예. 구역리하다가 해도 따로. 경[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 한사람도 돈 벌고, 알려
지는 것도 더 알려지고.

면담자 : 그니까 지금 그 울산이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울산이…….

구술자 : 음. 울산.

면담자 : 예.

구술자 : 여주는, 여주는 우리만 가와가지고[갔다와서] 그 여주대학교 그 과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거기도 성공 안되었습니다.

면담자 : 여주는?

구술자 : 음.

면담자 : 그러면 울산만 비교적 잘되고 있는 건가?

구술자 : 음. 울산은 시에서 다 하니까.

면담자 : 예. 시에서 다 주도해서 엑스포를 하더라구요.

구술자 : 계난 밀지고 무조건 시에서 합니다. 뭐 흙에서 밀쳐서 안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하
는 거니까.

면담자 : 음. 여주는 조금 실패한 거 같고.

구술자 : 실패한거 같애. 나 소문들어보니까

면담자 : 그죠?

구술자 : 거기 학교가 어서졌다고[없어졌다고] 하니까.

면담자 : 그러니까 울산처럼 조금 이렇게…….

구술자 : 아..거기 나 이름도 알아났는데 잊어버렸는데.

면담자 : 아 그니까. 어쨌든 제주도 굴도 그면은 전통 옹기라는 말을 붙이려면은 제주도 가
마 제주도 굴로 해야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때는 방식도 달라 아까처
럼 다르잖아요? 육지랑. 육지 가마랑. 그러면은 불때는 것도 약간의 뭐냐 육지 식
으로 때면은 안돼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구술자 : 안돼.

면담자 : 그니까 그러니까 실패를 많이 한 것이기도 하나요?

구술자 : 아니. 계난 굴 굽는 거는 그걸 떠나가지고 이 일 년에 한 열다섯굴, 스무굴을 구워
내야 한다고. 그게 습기를 많이 받아요. 거의 굴이. 계가지고[그래가지고] 자연으

로 ...기술이 모자란게 아니고.

면담자 : 아 근데 일 년에 한번씩 밖에 안 구워…….

구술자 : 한, 두골 밖에 못하지.

면담자 : 그러니까 아 그래서 문제 되는구나. 계속해서 옛날엔 계속해서 돌아갔잖아요?

구술자 : 옛날은 뭐 날짜가 어서서 못했지. 날짜가 모자려. 옛날은. 있는 사람은 많고.

면담자 : 음. 그래서 굴이 계속 습도를 없애면서 계속 꾸준히 가는 거였죠? 그니까 80% 되고 8~90%가 되었던 이유가..

구술자 : 계란[그러니까] 계란 한 사람은 그렇게 붙어음 좀 팔아야 되거든. 안으로. 보수해 주고, 보수해 주고. 조금씩 보수하는 건 일 없어요. 습기 안 받아요.

면담자 : 아 그러구나. 그것도 문제네요. 보니까. 그것도.

구술자 : 예.

면담자 : 저기 도예촌은 그때 굴 만든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도예촌에 있을 때는?

구술자 : 아 도예촌에 있을 때는

면담자 : 굴…….

구술자 : 나 있을 때는 저..구웠지. 구워도 거기도 일 년에 뭐 다섯골 (말이 섞이는 중), 다섯 골 밖에 못 구니까. 많이 구워야 다섯골씩.

면담자 : 으음. 돈도 많이 들지요? 한 골 하시면.

구술자 : 음. 많이 드니까.

면담자 : 그게 인제 상품으로써 그니까 아까 그 다기 만들고 이런 게 훨씬 상품 가치가 있잖아요?

구술자 : 계란[그러니까] 그런 걸로 돈 벌엄지. 이 용기에서는 돈 못 벌어.

면담자 : 그냥 전통을, 전통용기를 보존한다는…….

구술자 : 어. 보존하는 거.

면담자 : 그런 것에 의미를 두면 모르지만.

구술자 : 계란[그러니까] 기억리는 그것만 계산하는 거 다행. 보존하는 거. 계산이 지금 들어 가서 하는 새이장 하는 것이.

면담자 : 아.

구술자 : 전수시키겠다하는 그것만 목적을 잡아가지고.

면담자 : 으음. 아. 그렇구나.

구술자 : 이것도 문제가 많은 거지.

면담자 : 예. 그래서 어쨌든 기억리가 신평리보다 선점을 한 거잖아요? 선점을. 선점을 한 셈이잖아요. 신평리에 비해서.

구술자 : 계란 이것도 그 고바치 간 아이가 하다가 안되버리니까 이 뭐냐 그전 이장이 이걸 따가가 이걸 해냈는데 이것도 불법이런젠 새 이장나니까 부락으로 너네가 관리말고 그때 운영위원까지 다 조직되었어요. 경헌데[그런데] 불법이다 저 부락으로 넘기라고 헐 다수결 해가지고 쥐부렸지. 부락으로 넘겨주는 걸로 해부니까 새 이장이 쭈욱 맡아서 하는 거지. 계란[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부락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라.

면담자 : 아. 그런 문제가 있구나. 계속해서 옛날하고 갈등이 많았죠? 조금씩 있어왔죠?

구술자 : 옛날은 부락이 아니고 계로하니까. 열사람하면 열 사람만 했어요.

면담자 : 아 그러니까 별로 갈등이 없었구나.

구술자 : 같듯이..음.

면담자 : 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인제 부락으로 가다보니까 이권으로 관련되고.

구술자 : 계남 부락으로 주민 잘될까부덴 도에서 준거지. ...식으로. 계남[그러니까] 난 심의 원한테 그 요는 그거지. 그런 것 하젠 하면은 자기만 할 게 아니고 옛날 해난 사람들이한테 손내밀..짜야한다고. 공무원들이 짜는게 아니라고. 이것이 될거나 안될거나 이렇게.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옛날 해난 사람들은 다 알거든. 부락에 쥐서 될까 안될까.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그런 걸 해야하는데 이걸 뭐 지네 멋대로 행 돈 내치고 계남 저런 사람들은 결국은 다 만날 욕들을 소리지만 집 지어놓으면 도에서 집 뜯어가지 못한다. 하고 안하고 뭐 (웃음)

면담자 : 맞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구술자 : 계남[그러니까] 안할거면 돈 회수하라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체 하는 거라. 일주일에 한번씩. 거 전수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거지.

면담자 : 그나저나 조금 화제를 돌려서 그 뭐야. 이 옹기로 가장 아까 17세기 이후에 옹기로 인제 거의 생활 하셨잖아요? 그때 옹기 그 도공해가지고 받은 돈으로 생활이 되었나요?

구술자 : 생활은 되었는데 난 놀기 좋아해가지고 조금 벌락 말듯 말았습시다. 경[그렇게]해도 그런대로 경안했으면 돈이 왕창, 받아영 사실건데. 사는데 좀 도움이 되었지.

면담자 : 5~60년대 도공을 한 것은 70년대 까지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구술자 : 음. 70......

면담자 : 옹기 만드는 것은?

구술자 : 예.

면담자 : 그면은 마지막 만들러 간 마을이 어디였어요?

구술자 : 아 구억리에서 했어요.

면담자 : 구억리에서. 아.

구술자 : 음.

면담자 : 70년대?

구술자 : 음.

면담자 : 그면 구억리에서 아까 70년대까지 70년대 초까지 가마 됄다는 거죠?

구술자 : 아니. 70년 70년 말까지. 아..70년 초구나.

면담자 : 70년 초에 마지막 굴을 땀데......

구술자 : 60년도 말.

면담자 : 아니 신평은 좀 빨리 끝났고.

구술자 : 음. 신평은 빨리 끝났고. 신평이고 어디고 다 먼저 끝났어요. 여기. 제주 구억리가.

면담자 : 붉은 못이 조금..

구술자 : 붉은 못은 거 술래고.

면담자 : 아

구술자 : 건 육지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나 울산 갔다가 그 사람 만났다고. 또 우리 같은 권당이던데. 그 사람이 말앙 해났더라고.

면담자 : 음.

구술자 : 그 사람 옛날 저 똥돼지 길르는 것 까지 다 구경하고랜하는데.

면담자 : 음. 아 그래서 어쨌든 생활은 70년 초까지, 70년 초까지 그러니까 구억리에 불을
뺐다는 거죠? 저기. 그뎨 가마는 어디였어요? 저기, 저기?

구술자 : 아니. 여기 하동굴.

면담자 : 하동 가마?

구술자 : 음. 저기는 4.3사건 후에는 안 뺐고.

면담자 : 그니까 새로 박은 굴로 그니까. 대부분 새로 박은 굴로 했더라구요. 옛날거는 그냥
문화재로 남아있지.

구술자 : 계란[그러니까] 새로 박은 건 다 뿔라부렀어[무너뜨려버렸다].

면담자 : 다 뿔라졌죠?

구술자 : 다 없어졌어.

면담자 : 음. 그니까 새로 뿔라진건 개인 사유지여서 그러냐? 부락에서 안했어요?

구술자 : 아니 사유지 아니여도 뿔라부렀지. 공유지도.

면담자 : 그래요?

구술자 : 공유지로 그 과수원안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 땅이 공유지라.

면담자 : 아. 근데도 뿔라져버린거예요?

구술자 : 그 사람이 그걸 돌만 놔뒀어. 뿔르긴 했는데 땅은 나무 안 심겼어[심었어]. 공유지
땅이니까.

면담자 : 음.

구술자 : 임대 험시민[하고 있으면] 나무 심글건데[심을 텐데] 임대로 안 한 거 같더라고.
또 요쪽 하나 신것도[있는것도] 반착은 공유지고 반착은 개인 집이고.

면담자 : 4.3사건 난 이후에 굴 박은 것이 두 개 었어요?

구술자 : 음. 두 개.

면담자 : 하나는 뿔라지고, 하나는 좀 더 오랫동안 뎨 거죠? 그니까.

구술자 : 아니. 두 개다 그렇게 뺐어요.

면담자 : 두 개다가. 그럼 각각의 굴에 가마계가 따로 있었겠네요? 각각의 굴에 그니까.

구술자 : 계원이 따로 있지.

면담자 : 계원이 따로 있었겠네요?

구술자 : 음.

면담자 : 이쪽에 열 명 정도, 이쪽에 열 명 정도.

구술자 : 열 명도 하고 열다섯 명도 하고.

면담자 : 열다섯 명도 하고.

구술자 : 거 일이 많으니까.

면담자 : 음. 황시 뉘 이렇게 보면은.

구술자 : 채무,

면담자 : 그 다음에 소임.

구술자 : 아 소임 다음에 채무.

면담자 : 소임 다음에 채무. 아. 그러고 연락책이 소임이었나요? 그뎨은?

구술자 : 음.

면담자 : 아.

구술자 : 계란 돼지 잡으면 그렇게 분배시켜야해여.

면담자 : 아 돼지 잡으면은 굴 뭘때 돼지 잡는 거예요?

구술자 : 아니. 돼지는 잡지 않는데 거기서 필요하다면은 계에서 잡으면은 먹을 걸로 잡으면은 황시한테는 머리, 이렇게 분배한다고.

면담자 : 아..

구술자 : 거 굴에 활려고 잡는 건 아니고. 굴에는, 굴에는 그냥.....

면담자 : 물주가 체를 지내는.....

구술자 : 체만 지내고 저 돼지고기도 안올리고.

면담자 : 그면 체는 뭐, 뭐, 뭐 올리나요? 물주가? 우리 굴잘되라고.

구술자 : 체사나 똑 같은 건데 이 돼지고기 같은 거 이런 거 뭐 막 뭐 차리진 않고.

면담자 : 음.

구술자 : 근데 밥이 세 개로 들어가요. 귀신이 예 하르방, 할망, 또 거기 굴대장 찍시[몹] 하나 놓으니까. 굴대장이 책임져서 하니까. 탄사람하면 탄 사람 찍시로 올라가고. 하여간 되는 무조건 세 개 올라가. 경행[그렇게 해서] 굴 뒤에 가서 체 지내. 그 걸 보고 지금 굴제라고 해가지고 신평서 그 은숙이네가 돈 많이 탔지.

면담자 : 음.

구술자 : 무지 탔을 겁니다.

면담자 : 그래요? 저도 확인을 안해봐가지고. 그때는 곤밥을 주잖아요?

구술자 : 예.

면담자 : 그때는 곤밥 얻어 먹을려고 애들이랑 막.

구술자 : 계란[그러니까] 아이들은 곤밥이 뒷산디 구경도 안해나니까 그걸 얻어먹젠가지. 가민 손 영하민 걸어놓고. 또 집에 와서 갈라먹는 거는 옛날은 일인용으로 밥을 거리지 않고 낭퐁이 하나 퍼놔그네 여라이 돌아앉앙 먹거든. 계민 그 위에 곤밥을 영 덮어부는 거라.

면담자 : 아 맞아요.

구술자 : 옛날 색시도 경[그렇게] 했어. 색시도 오면은 아이들이 마당으로 숨박[가득] 담아져.

면담자 : 음.

구술자 : 색시 밥 남으면 얻어먹을려고. 계민[그러면] 우리도 경[그렇게] 해났는데 색시 몇 직까지 먹으면 밥 숟가락 놓을건고 하면서 숟가락 까지 문[모두] 세어놓고.

면담자 : (웃음) 그니까요.

구술자 : 계란, 계란 얻어먹고.

면담자 : 아.

구술자 : 이젠 계란도 먹지도 않는데.

면담자 : 그래서 어쨌든 그 70년 초까지는 여기 옹기, 가마 불을 땀다는 거죠? 구억리에서?

구술자 : 음.

옹기업 이후의 생활

면담자 : 근데 문을 닫게 되었잖아요? 이제? 가마 굴을 안 때기로 했잖아요? 70년. 후반기 부터는? 그면은 전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업을. 전업을 이제 직업이 없어졌잖

아요? 굴 만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옹기 만드는 뭘 부르는 데가 없었잖
아요?

구술자 : 없지.

면담자 : 그땐 어떻게 하셨어요? 그땐은?

구술자 : 뭐 어떻게. 놀아야지.

면담자 : 그때 일본으로 가신? 그때 일본으로 가셨나? 어떻게 하셨어요?

구술자 : 일본도 가젠 해나고 저 김대중이 사건 날 때 발 하나 팔앙[팔아서] 일본가젠 부산
갔다가 대중이 때문에 못 갔지. 그땐 밀항밖에 없으니까.

면담자 : 밀항했죠? 다?

구술자 : 계난[그러니까] 발 판거까지 다 먹영 들어와불고.

면담자 : 아.

구술자 : 또 팔십, 팔십 몇 년도, 85년돈가? 83년도. 발 하난 팔앙 또 일본 간 또..(말이 섞
이는 중)

면담자 : 아 일본 두 번..?

구술자 : 아 한번은 못가고. 한번 간 것도 걸령 와버렸지.

면담자 : 음.

구술자 : 발 하나 팔고.

면담자 : 발 하나 팔았는데 본전도 못 찾고 온거죠? 일본 오사카로 가신건가..오사카?

구술자 : 음.

면담자 : 오사카 어느쪽으로 가신거예요?

구술자 : 조선이찌방.

면담자 : 아. 조선이찌방. 거기 시장도 있고 막.....

구술자 : 예. 시장.

면담자 : 시장을 간 거예요?

구술자 : 아니. 시장 애염애[근처에]. 계난[그러니까] 그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면담자 : 예. 예.

구술자 : 일을 하기 위해가지고.

면담자 :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신 거?

구술자 : 계난[그러니까] 플라스틱 꼬리도 해나고.

면담자 : 플라스틱?

구술자 : 음. 플라스틱 만드는 거 플라스틱 이렇게 나오면은 꼬리가 나오거든. 이렇게 꼬리
불영 나와. 계민[그러면] 그걸 나나라고 다듬는 거.

면담자 : 음.

구술자 : 거 하고. 또 가미공장이라고. 저 약봉지 같은 거 만드는 공장.

면담자 : 약봉지. 아.

구술자 : 또 돈 하영 줄까봐 그곳으로 옮겼지. 또. 뱅끼저 코페라도 뿌리는 거.

면담자 : 페인트 뿌리고. 이렇게.

구술자 : 뿌려그네 이천몇도 구웁나와. 저 차부속. 차부속들. 거기하는데 개인공장인데 해꿈
[아주작은]한데 해난 뱅끼 뿌리면 사람도 못봐. 그거 몇 도에서 구워내고 경하니
까 그 안에는 한 40도가 넘지. 그 열로. 그 일본땅은 공장지대니까 베끼티[밖에]
나와도 35도, 40도는 보통 나와. 경[그렇게]해도 베끼티[밖에] 나온게 시원해 보

여. 안에서 공장안에서 있을 때 보다.

면담자 : 그렇게 몇 년 있었어요?

구술자 : 몇 년, 일년 밖에 더 있어.

면담자 : 일년간, 한번은 밀항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두 번 제 85년도? 4년도?

구술자 : 4년도. 5년도. 5년도.

면담자 : 5년도에 가서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셨잖아요? 인제? 걸려가지고.

구술자 : 음.

면담자 : 동생이랑 같이 가셨나..?

구술자 : 아니. 갈때는 따로 갔는데 올때는 걸령[걸러서] 같이 왔지.

면담자 : 같이 왔구나. 그렇게 해서 몇 년 또 보내셨잖아요? 재판받고.

구술자 : 재판은 오래 안 걸려. 거기장[가서] 20일 동안 재판받앙 풀리지.

면담자 : 그 다음에는 뭐 하신 거?

구술자 : 농사지었지.

면담자 : 농사, 그면은 사모님이랑 같이?

구술자 : 그때 나와서 그 옛날도 먹기 곤란하니까 일본 가젠 한거지. 이제 나와서 남의 일을 무지 했다고. 일본 강 저 공장에 일하는 거마니[만큼] 하면 돈 못 벌라해가지고.

면담자 : 음.

구술자 : 약을 한 삼만평씩 맡아가지고.

면담자 : 약 치는 거.

구술자 : 약 치는 거. 정정하는거.

면담자 : 그때는 좀 안정되었겠네요?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구술자 : 경허난[그렇게 하니까] 난 남은 건 병 뿐이지. 돈은 못 벌고. 눈도 그때 가분 거 같애.

면담자 : 아. 용기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죠? 만약에 그것만 모았어도.

구술자 : 음.

면담자 : 근데 이제 용기 할 때 보다 더 안 좋아 진거네요?

구술자 : 음.

면담자 : 근데 보통 용기 하신 분들이 과수원, 여기 과수원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럴 때 뭐 돌도 깨고 돌담도 쌓고.

구술자 : 아 우리도 다 그거 했지.

면담자 : 아 그래요?

구술자 : 지금 창고에, 이 저 과수원 안에 창고. 밀감 대며놓는 창고가 다 돌로 닿아야 저게 썩지 않으거든.

면담자 : 예.

구술자 : 지금 블로구로[시멘트블록] 하면 돌로 하는 거 곱 썩어. 경행[그렇게 해서] 그걸로 거의 했고.

면담자 : 그 일도 하신 거? 그면 약치는 거 외에?

구술자 : 어. 어. 이 용기 끝나부니까. 용기 끝나부난 그걸로 돌았지. 그것도 이제 그것뿐이 아니고. 옛날 여기는 과수원에 다 담을 쌓았다고. 이 돌이 많으니까. 치기위해가지고 담으로 적담 놔다고. 적담 놓으면 이제 우리 과수원 있어. 그거하고 지금 대정

음 사무소 울타리도 우리가 다 한건데. 그걸 남아있어. 지금. 지금 대정읍 사무소.

면담자 : 그 돌담 쌓는 거?

구술자 : 음.

면담자 : 돌담.

구술자 : 이 울타리 쌓는 거. 우리 쌓은 거 그대로 있어. 지금.

면담자 : 과수원 돌담도 쌓고.

구술자 : 음. 과수원도 싸고.

면담자 : 구덩이 파고 막 그랬잖아요?

구술자 : 구덩이는 밀감 심을 때. 구덩이 파고. 이젠 그런 거 다 포크레인으로 하는데. 옛날
은말양 했지.

면담자 : 음. 아 고생 엄청나게, 오히려 옹기 끝나고 오히려...

구술자 : 안해 본 것이 어시[없이] 다 했던 하난. 난 게니까[그러니까] 병신 된거지. 저 사
람만 안 죽영 다했다고 나 ㄹ라[말해].

면담자 : 음. (웃음) 또 어떤 일 하신 거?

구술자 : 안해본 거 없지.

결혼과 가족

면담자 : 그래요? 그래서 언제 어쨌든 결혼은 언제 하신 거? 아까 그 일본가기 전에 하신
거잖아요? 결혼은? 언제 결혼 하신 거?

구술자 : 일본 가기 전에.

면담자 : 그니까 몇 년 몇 살 때 결혼 하신 거예요?

구술자 : 스무살 나는 해에 하니까.

면담자 : 아 스무살 때.

구술자 : 스무살 나는 해니까 우리 아들이 나하고 스무 살 차이.

면담자 : 아. 스무살 때 결혼을 하셨고, 그면은 동네, 어느 동네분? 사모님은?

구술자 : 저 월광동에서

면담자 : 아까 옹기 만드는 월광동에서 거기서 만나신 거?

구술자 : 음.

면담자 : 아 그러셨어요?

구술자 : 만난, 연애가 아니고 그땐..

면담자 : 소개? 소개?

구술자 : 소개지.

면담자 : 아 돈 잘번다고 누가 소개시켜준 거 아닌가?

구술자 : 아니. 주인이 나하고 사촌간인데 저쳐가지고. 거기굴 많이 만들어 주니까. 자기가
소개해 준거지.

면담자 : 아 그래요? 몇 살 차인데? 사모님하고는?

구술자 : 한 살차이.

면담자 : 한 살차이. 그면은 열아홉, 스물에 만나셨네요? 그면은 신혼집은 분가를 했을 거
아니예요? 분가?

구술자 : 아니. 거기는 스물 하나고, 나는 스물, 한 살 위.

면담자 : 아 한 살위에. 그러면 여기 어느 분가를 했을 거 아니예요?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니까. 어머님 따로 살고, 안커래[안쪽], 밖커래[밖쪽] 사셨어요?

구술자 : 우린 요 밑에 살았어요.

면담자 : 아.

구술자 : 그집은 이제 어서저불고[없어져 버리고].

면담자 : 그렇게 해서 신접 살림을 차렸고, 슬하게 자제분이 그면은?

구술자 : 우리?

면담자 : 예. 큰 아들? 아까 큰 아들.

구술자 : 1녀 4남.

면담자 : 큰 아들 있고 딸은 밑에? 딸[딸]은 밑에.

구술자 : 딸 세 번 께딸,

면담자 : 그 밑에 아들이고.

구술자 : 아들 두 개.

면담자 : 으음. 아 그렇게 해서 4남매? 5남매?

구술자 : 5남매.

면담자 : 아 5남매 슬하게 두셨고. 왜 용기를 다 그때는 이미 다 멜라 용기를 전혀 시킬려고 안 했겠네요? 그때? 그죠? 그리고 멜라져버리고. 그래서 어쨌든 고생을, 어쨌든 사모님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

구술자 : 예. 많이 했지요.

면담자 : 그죠?

구술자 : 용기 하젠 하면은 물도 어성 물도 길어와야지.

면담자 : 용기 하려면 물도 길어와야해요?

구술자 : 부락 수도도 어실 때.

면담자 : 용기하면 물도 다?

구술자 : 음. 밤에 물 길어오고.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낮엔 일하고.

면담자 : 아. 물이 왜 필요해요? 물이?

구술자 : 먹을 거.

면담자 : 아 먹을 걸로. 아. 맞아. 거의 사모님이 집안 일은 다 하신 거네요?

구술자 : 음. 정하다가 못하면 우리 마차로 강 실어오고.

면담자 : 아. 맞아요지. 그나저나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사모님이 가정생활은 애들 키우고, 선생님은 아까 그 용기문 닫으면서 이것, 저것 안해본 것이 없이 다 했네요? 그래도 오히려 용기 끝나고 더 가정적이 되었겠네요? 용기 할 때보다 가정에 더?

구술자 : 아니. 먹고 사는 거 뿐이지. 벌어놓은 거 하나도 없어.

면담자 : 그니까. 그니까 어쨌든 그 전에는 별로 안 그랬는데 노름도 하시고..

구술자 : 노름 해버리니까. 뭐.

면담자 : 그니까. 그러다가 이제 일본..(말이 섞이는 중) (웃음) 일본 갔다오셔서 어쨌든..

구술자 : 정신차렸지.

면담자 : 어 정신 차려..(웃음) 그때가 사십대였어요?

구술자 : 다 망하니까 정신차린거지.

면담자 : 그때가 사십대쯤? 보편은?

구술자 : 어. 되었지.

면담자 : 사십 몇 살 쯤, 그때부터 인제 가정에 충실하고 인제 집에 조금 보탬이 사모님이 조금 더 인제 그 가장의 도움을 받았겠네요?

구술자 : 음.

면담자 : 아 그렇게 해서 슬하의 자제분들을 다 이제 그면은 다 여기 제주도 살아요?

구술자 : 아니. 서울 하나 살고.

면담자 : 서울, 그 외에는 전부 다 제주도 살고.

구술자 : 음.

제주 전통 용기의 축제화와 문화유산화 과정 (2)

면담자 : 아 그러면은 그러면 아까 도예촌에 맨 처음 가시된 것이 언제였어요? 도예촌. 아
까 용기 복원.

구술자 : 그때가 97년도 인가?

면담자 : 아.

구술자 : 나가 송창식이 죽어부니까 그 즉시갔어.

면담자 : 아. 그 즉시. 강창언선생님이 모시러 온 거네요?

구술자 : 모시러와도 나 안갈려고 했는데.

면담자 : 그때 열심히 약 치고, 열심히 일할 때. 발농사하고.

구술자 : 그니까 그 딴 사람것도 이셨지만 우리 나하고 박두만이가 잘 만든덴 소문났어요.

면담자 : 아 그래요?

구술자 : 옛날에. 그래서 그 강창언이도 그걸 들었던거야. 박두만이한테 강 죽어도 안하겠다고 하니깐. 걍 나를 몇 년 찾아 댕긴 모양이야. 걍 나도 이거 안 할려고 했는데 그때는 얘기가 귀에 들어오더라고. 좀 나이 들면은 그 작업안하고 전수안해도 먹 영 삼니덴하명[산다고 하면서] 하도 추그러가지고. 결국은 와도...아주 똥개 혼련만 시키는 건데.

면담자 : (웃음) 왜 박두만 선생님은 계속 농사지으시고.

구술자 : 음.

면담자 : 만나시나요? 박두만선생님은.

구술자 : 아 자꾸 만나. 전화오고.

면담자 : 아 전화도 만나고.

구술자 : 켜디 저 나가 ...이 나 뭐랜 그젠[말하려고]하당[하다가] 잊어 버린.

면담자 : 아까 도예촌에서.

구술자 : 음 도예촌에서 나가 잘못했지.

면담자 : 왜요?

구술자 : 절대 일로 나오지 말아야하는데, 강창언이는 못가게 하는 건데 이부락이장이 강
[가서] 하도 사정을 하는 거라.

면담자 : 아. 그랬구나.

구술자 : 저 책임지고 선생님을 못 견디게 안 할 거니까 저 부락으로 하는 거니까 도와주

면.....

면담자 : 언제였어요? 그때가?

구술자 : 그때가 이장 몇 사람 그랬나[말했나]? 두 사람. 한 4년쯤 되었지.

면담자 : 2011년도 옹기장을 될 때?

구술자 : 음. 옹기장으로 되면 어. 될 때. 될 때.

면담자 : 그 이후, 될 때쯤. 아.

구술자 : 게가지고[그래가지고] 저 심의위원도 강창언이도 나 모르게 찢라버리고 게서 심위원도 일로 가야한다고 막 말라고, 건[그것은] 나한테만 이야기 한거고. 강창언이는 경해도[그렇게 해도] 곤당[말하다가] 못가게 했거든. 건데 나가 너는 이젠 골 굽는 거고 뭐이고 다 전수 받았으니까 너만도 되겠다. 부락이라부난 안가면 뭐랜한다고. 나도 얘기하니까 이젠 할 수 없이 내분거라.

면담자 : 그랬구나. 2011년도부터 그면은. 도예촌에서 나온 거네요?

구술자 : 계난[그러니까] 나온 게 지금까지 이렇게 저 똥개 혼련시키는 거지. 경[그렇게]했으면 이젠 책임지고 하켄 한 사람도 없어서 불고. 있지마는 그런 거 그라난[말했던] 생각도 안하고. 또 도에서까지 다 뭐된거니까 이 거기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돼지.

면담자 : 오히려 마을 때문에 이 도예촌하고 마을이나 도예촌에 따라서 그게 갈림길이었네요? 선생님의 인생에서 인제 그 그죠? 어. 그래서 후에 그때 이장님 설득하고, 문화재 심의위원이 설득하고 그랬네요? 그 당시에.

구술자 : 그렇게 안하면 안했지.

면담자 : 음.

구술자 : 이장은 나하고 싸움까지 했는데. 강창언이 경한거 너 드라다[테려다가] 봤으니까 손해배상 내놓으라고 싸웠어.

면담자 : 그 당시 이장님 살아계시네요?

구술자 : 아 살아있지. 젊었는데.

면담자 : 성함이 어떻게 되는데요?

구술자 : 박용석.

면담자 : 박용석. 아.

구술자 : 그 다음은 고종환. 그 다음은 지금 이장.

면담자 : 지금 이장님 성함이.

구술자 : 저 영종이. 박영종.

면담자 : 아. 이양반 젊은 분이예요?

구술자 : 음.

면담자 : 다 젊은 분이 한거예요? 최근에는?

구술자 : 음.

면담자 : 아

구술자 : 옛날엔 나이든 사람이 했는데 나이든 사람 안해.

면담자 : 어쨌든 그 2011년까지는 도예촌에서 계속 활동 하셨네요? 제가 옛날에 2008년도 만났.....

구술자 : 그땐, 그땐.....

면담자 : 열심히 막 할 땐데.

구술자 : 뭐 나갈 때니까 뭐 옹기도 많이 맨들었고[만들었고]. 뭐 무지 했지.
면담자 : 아 그때는 많이 다른 지역도 가고. 그쵸? 다른 지역에서도.
구술자 : 거기 도예촌 있을 때 다른딘[곳] 안가고. 거기꺼만 했는데.
면담자 : 도예촌에 그때 갈 때 많은 그 당시에 그 이윤옥선생님, 강신원선생님 다 거기 있었잖아요?
구술자 : 그 사람들은 나중이고.
면담자 : 맨 처음에 가셨을 때는 송창길선생..
구술자 : 음. 거기 하고 홍태곤이.
면담자 : 아 홍태곤 맞아요.
구술자 : 굴 박은 사람.
면담자 : 굴대장. 굴.
구술자 : 굴대장. 그 사람이 원래 옹기장인데 굴대장까지 했어. 그 사람이.
면담자 : 홍태곤. 돌아가신 홍태곤.
구술자 : 음.
면담자 : 홍태곤이쵸?
구술자 : 음. 계난[그러니까] 그 사람 이덕양[자기 스스로]으로 하진 못하고 시켰지.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계난 송창식이는 잘 할걸로 봤는데 한 2년 하니까 죽어버리고.
면담자 : 그니까이. 문화재 지정받고 얼마안되서 돌아가신거죠?
구술자 : 문화재 못 받아봤어.
면담자 : 아 송창식선생님이요?
구술자 : 음. 문화재 그때는 한발디서[한곳에서] 3년 이상하고 2년이상 심사받고 하면은 5년 걸려요.
면담자 : 5년이구나. 그 당시는.
구술자 : 2년 밖에 안행[안해서] 죽었으니까 못했지. 계난[그러니까] 우리는 계니까 이 심사도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3년 어디서 복원해난 근거가 있어야하고. 다 만들어서 지금 한거거든, 또 2년 심사, 1년 동안에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 거기만 왕사는 거라. 심사하는 사람들 살지도 안하는 건데.
면담자 : 음
구술자 : 기간을 타서 와서 심사하는 건데. 2년동안 심사해야 확실하다해야 주는 건데. 이렇게 된거지. 계난[그러니까] 이 그 사람은 그거 받을 시간이 어졌고[없었고] 2년된 죽어버리니까. 홍태곤씨도 마찬가지.
면담자 : 아 얼마안되서 굴 박고 돌아가셨구나.
구술자 : 홍태곤이 이실 때는 굴대장으로 따로 할려고 안했어요. 도예촌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윤옥이하고 강신원이네, 고달순이네 드아온거는[데리고온것은] 불땔려고.
면담자 : 아 그다음에 불렀구나.
구술자 : 예. 불 땔려고 하니까 버치니까[힘드니까] 반 때다가 불렀어요.
면담자 : 그때가 2000년대, 2000년 썸인가?
구술자 : 예. 나가 불려서 하고 일당으로 주고. 게서 계속 했지. 경한게 누구말따나 독새기 통에까지 다 들러넘어간거지. 계난[그러니까] 저 신평사람들이 나쁜사람입니다게. 강창언이가 그렇게 잘해주던거 은숙이 말들영 떨어져가분 사람이나, 은숙이는 싸

위지니까 그걸 차단시킬려고 막 나쁜말만 한거지.

면담자 : 음.

구술자 : 계난[그러니까].

면담자 :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되니까 뭐.

구술자 : 그걸 진짜로 알아들어가지고.

면담자 : 음.

구술자 : 계난 나는 그렇게 안하니까 나하고 원수지는 거라. 싸운게 아니고. 난 그 사람추특
[처럼] 안 따라주니까.

면담자 : 음.

구술자 : 틀림없이 자기는 따라 줄걸로 봤거든. 심의위원도 그렇고.

면담자 : 음.

구술자 : 별 소리 말하고 나 문화재 찢르면 찢랐지 나 그거 가젠.....

면담자 : 그 당시 심의위원이 누구였어요?

구술자 : 이제도 하는..이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현진속씨라고.

면담자 : 현진속 아.

구술자 : 저 사람도 오래했어.

면담자 : 그분이 서귀포시에 있나요? 제주도청?

구술자 : 남편은 도청의 직원일겁니다.

면담자 : 그니까 지금 서귀포시에. 현진속선생은.

구술자 : 아니. 개인 작업장 이서났어요[있었었어요]. 서귀포에.

면담자 : 현진속 선생은 지금도 심의위원이예요?

구술자 : 겐디[그런데] 심의위원 중간에 사건 날 때 안했어요.

면담자 : 아. 지금은 뭐해요?

구술자 : 남편한테 욕사들어신지 안했다가 또 들어갔어.

면담자 : 어디로?

구술자 : 심의위원으로.

면담자 : 아 그래요?

구술자 : 왜 안한다고 했는데 왜 또 들어왔냐고 하니까 할 사람이 없어 하도 해네..

면담자 : 그 양반은 분야가 뭐죠? 현진속선생님은? 분야가 도자기..

구술자 : 도자기같애.

면담자 : 아.

구술자 : 자기 작업장 차리노랜하명[차렸다고 하면서].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
국은 은숙이도 한 구락부가 된 거 같애. 말은 안해도. 왜 그런고 하니까 그걸 보
존회장까지 했으니까. 경[그렇게]안하면 보존회장 안 하거든. 심의위원이.

면담자 : 음.

구술자 : 보존회장하고. 여기 영종이 구역리 이장은.

면담자 : 현진속 선생이 보존회 회장까지 한 거?

구술자 : 음.

면담자 : 아.

구술자 : 계니까 거기왕[와서] 같이 짹짹 맞춘거지.

면담자 : 아 그러면 원래 회장은 강신원선생님이 옛날이 하신 걸로. 그 전에 그러면?

구술자 : 강신원 할 때는 여기서 할 때고.

면담자 : 아 그전에 그면…….

구술자 : 아 그로후제 고바치 간 후에.

면담자 : 고바치 간 후에. 아 현진숙선생이 회장도 하고. 아.

구술자 : 구역리 이장은 이사를 했고. 저 구역리 왕[와서] 신덴[있을 때는] 박물관 맨들때 [만들 때] 행사를 했거든. 은숙이 박물관행. 문대림이가 이사를 했어.

면담자 : 힘 있는 사람을 했구나.

구술자 : 도의원이.

면담자 : 아. 그랬구나. 이사진이 거의 힘있는 사람 다 채워졌네.

구술자 : 그러니까 다 원래는 문대림이가 먼저 들어갔을 겁니다. 맞춰졌을 겁니다. 그 끝발 이 게서[그래서] 공무원들 알았고, 알았지 은숙이가 직접…….

면담자 : 보존회 통해서 그러니까.

구술자 : 음.

면담자 : 아 문대림을 했군요. 의원이죠? 그면은?

구술자 : 음.

면담자 : 아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현진숙회장, 누가 또 회장이었죠? 그면은? 또? 회장 그 뒤로. 강신원.

구술자 : 강신원인 처음 회장했고. 그 다음에 은숙이가 하다가 은숙이가 했젠, 확실한건 모르지.

면담자 : 예. 예.

구술자 : 나 말을 들었는데.

면담자 : 그니까 맨 처음에는 강신원선생님이 하신거고.

구술자 : 음.

면담자 : 2008년도 쯤에는.

구술자 : 음.

면담자 : 그렇게 해서 도와고 연결되었구나. 심의위원회랑 이런 것들로.

구술자 : 그러니까 강신원이 은숙이신디 시면서 했는데 저디[저곳에] 전수관을 짓게 되니까 그 은숙이가 진숙이가 나한테 오랜한테 전수관 때문. 문화재 다 한발디서[한곳에서] 시키게 되니까 와야 도예촌에서 빠져 나와야 한덴 하도 하니까 나가 나왔거든. 그니까 그때 나온 게 나 나와서 강신원에도 전부 일로왔고 윤옥이 그 사람들 문화재 시키면서라.

면담자 : 음.

구술자 : 또 고달순이가 또 아니지만은 고달순이 고원수, 저 누구 고신길이는 아예.

면담자 : 이미 아팠고.

구술자 : 아픈걸 문화재 시켰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구역리 와서 이제 모냥[모양]으로 전수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도에 등록이 되었지. 전부 도장받아네. 이 사람들 여기 와서 한다고. 경했는데 그게 목살되가지고 도에서도 그거 놔뒀는지 말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바쳤으면 도에서도 그것에 따라줘야하는데 그렇게 안해줘가지고 그냥 내버렸는데. 경[그렇게]한사람들이 이번 정근이가 있으니까 그 구역리 이장이 가가지고 저 전수할 사람들은 문화재는 늙어버리니까 이 사람 혼자만 하면 안돼느냐 하니까 된덴했덴 얘기 했는데 도에서. 건 난 그 자체가 얘기를 잘못된 거 같

애. 거기 박용범씨라고 전의 문화재 연구원으로 있어났어. 그 사람이 나하고 싸워서 다른 데로 가버렸어. 그게 문화재 전문위원인가.

면담자 : 전문의원.

구술자 : 연구원. 연구원, 전통용기 연구원.

면담자 : 아 박용범 선생님이. 어쨌든 문화재 쪽에 관련된 분이시네요? 박용범도.

구술자 : 작년까지 이셨나[있었나]? 재작년까지 있었다. 작년까지 있었어. 작년까지. 갱[그래서] 나 도에 강[가서] 막 싸워나니까. 그 다음에 없어져버렸는데.

면담자 : 음. 아 또 그런 부분이 있구나. 아, 음, 어쨌든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복원 그 뭐냐 이 도예촌하고는 맨 처음에 97년도 같이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인제 2011년도에 그니까 거기서 단절지은거죠? 단절한거죠? 지금 혼자 나와계셔? 이제? 거의? 외톨이가 되셔버렸죠.

구술자 : 게.

면담자 : 그죠? 이것도, 저것도. 도예촌도.

구술자 : 도예촌에 들어갈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돼니까.

면담자 : 음.

구술자 : 들어갈려고 했는데 도예촌에서는 도에 등록되어 버리니까 안된단. 자기 또 욕 먹는다고.

면담자 : 아.

구술자 : 계란[그러니까] 거 따문[때문에] 도예촌에서 받아주지 않은 거지.

면담자 : 그 이후에는?

구술자 : 음. 등록되어 버리니까.

면담자 :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어버렸네요. 지금.

구술자 : 예. 경[그렇게]된되지. 계서 하도 부애[화]나가지고 한번은 개인이 전통학교 나온 아이가 있어. 지집아인데. 욕지서 나오긴 했는데그 하도 전수시켜도랜한. 나 안가겠다고 했는데 하도 해가지고 한달 전수시키단 있어요.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가이는 아무래도 도자기는 한 9년 했대. 학교 나와가지고. 근데 이거 가르치니까 [가르치니까] 당장, 당장 하더라고. 전통용기를 하기 어렵 땐 해가지고. 이걸 도 비밀로 나가 이거 간 가르쳤는데. 도에서도 난 잘못된건 없습니다.

면담자 : 없죠. 그건 없죠.

구술자 : 뭐 꼭 도에서 하랜 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면담자 : 예.

구술자 : 개인이 요구하면 강 가르쳐주는게 원칙이니까.

면담자 : 예.

구술자 : 계서[그래서] 나 도에서 뭐랜 그들[말할] 줄 알아도 가서 해줬는데. 난 할려고 안 했는데 막 아파가지고 못하는데 하도 사정하는 거 어린아이 와서 사정하는 거 보고. 그 끝내 이기지 못해서 갔는데.

면담자 : 아 맞아. 강창언 선생님하고 계속 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겠네요?

구술자 : 아주 달라졌지.

면담자 : 음.

구술자 : 강창언이도 죽어불고.

면담자 : 아니, 아니 강창언...아 지금 그런 의미에서 주변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구술자 : 죽은거고. 강창언이가 나 생각났으면 우리 법원까지 갔다왔어요. 검찰에간 다섯시간 조사받고, 법원에까지 갔는데 그 나는 가져간 사람하고,....보증으로 불렀더라고요. 게서 물으니까 나 이사람 보증아니라고. 가져간 사람이 시키니까 가져갔다고 하니까 나가 조사받은 거라고. 게니까 '아 그럼 선생님이랑 잡썬.' 그러더라고. 켄디[그런데] 강창언이 고라 한번 더 나오라고 하더라고. 그때 나 생각엔 영창은 안 살았지만 벌금도 안 내고 했지마는 집행유예를 받은 거 같더라고. 돈을 도청까지 갔다줘버리니까. 여기서 준게 아니고.

면담자 : 음.

구술자 : 그게 조사로 되어부렀거든. 그니까 저게 경 안하면 강창언이가 가만히 이실놀이 아닌데. 완전히 죽은 목숨이라. 지금.

면담자 : 거의 뭐 제외된 거죠? 보면은 거의.

구술자 : 계난[그러니까] 날고라[날보고] '저 건강만 험심썬. 나 죽기전에 알리쿠다[알리겠다].', 하는데.

면담자 : 예. 어쨌든 강창언 선생님하고는 2011년 이후에는 거의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구술자 : 가끔 만나긴 하지마는.

면담자 : 예. 다른 길을 복원하고는 관련시켜서는. 강창언선생님은 일단은 특허받은게 많아 가지고.

구술자 : 강창언이는 또 얘기도 잘하고.

면담자 : 예. 특허 받은 게 있어요. 그대로 생항은.

구술자 : 허벅이고 항이고 다 맨드라[만들어].

면담자 : 특허도 많이 받았고. 어쨌든. 운영을. 근데 거기 강창언 선생님네 그쪽은 영락리. 자기 땅인거 같아요. 자기 땅.

구술자 : 켄디[그런데] 저게 나 들어가서는 뭐니 중소기업 자급으로 한 거 같애. 말들어보니까.

면담자 : 지원작업으로 했구나.

구술자 : 거기서 일년에 한번씩 검사와.

면담자 : 예. 맞아요. 맞아.

구술자 : 계고[그리고] 우리는 무신 보림이렌 하나. 저. 다섯사람이상.

면담자 : 아 거기 뭐냐 고용보험.

구술자 : 그거 우리 글로 등록되었고 또 이제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도 글로 해줬고. 신체 검사.

면담자 : 어쨌든 기업으로 등록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받아서 운영한거죠?

구술자 : 음. 그게 이제 안다녀.

면담자 : 안하고.

구술자 : 이제 다 자기거 만든 거 같애.

면담자 : 그때는 중소기업지원금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거 같고.

구술자 : 요 중간엔 모르긴 몰라도.

면담자 : 것은 어쨌든 허은숙선생님은 복원과정 거기서 나와서 검은 돌 거기도 보면은 이운옥 선생님 땅이었던 것 같은데.

구술자 : 계난[그러니까] 거기서도 보조 많이 받아가지고 만들어냈거든. 굴까지 박았거든.

면담자 : 음.

구술자 : 게서[그래서] 그게 잘못되니까 윤옥이가 치우라고 해가지고 깨끗이 치웠어요. 하나도 없어.

면담자 : 음. 지금은? 검은 돌인가 뭐가.

구술자 : 음. 겐디[그런데] 그 동네...없이 없어진거지.

면담자 :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고신길 선생, 고신길 선생님 거기 터로 운 좋게 터로 간 거죠? 타이밍이. 지금 여기 제주 전통거리 뭐냐 거기 옹기, 옹기 거기 박물관 거기가 구역 분교 지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서 간 거잖아요? 고바치? 고바치죠? 거기가.

구술자 : 음.

면담자 : 어떻게 딱 그게 맞아 떨어진거 같아요. 거기 자기 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사회땅이니까. 회사를 했으니까.

구술자 : 회사 아니지. 회사 안행 큰 아들만 아들 세성제[3형제], 딸 세성제인데 큰 아들만 허가 한거지.

면담자 : 그럼 그 땅 주인은 큰 아들인거예요? 땅 주인은 그래도 보면은. 이.

구술자 : 그거 나누는 식이 잘 안된거 같애. 계남 딸들이 이의 걸었지.

면담자 : 아. 그래서 회사를 한걸로 나와있어. 회사를 한 거로. 그냥 준걸로.

구술자 : 그냥 쥐도 자기이름에 걸 쥐야지. 공동이신 걸 주면은 자기이름에서 준 것은 딸들이 이의걸지 못하거든.

면담자 : 그럼 사회 땅인데 사회땅을 지금 그냥 쓰고 있는 거죠? 거기 제주 옹기 거기는 그냥. 개인 땅이 아니고 이미. 사회에 회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구술자 : 회사가 안된걸로 되어있지. 법적 무신거 때문. 계남[그러니까] 송사 걸어부니까. 딸들이 걸어부니까 그 부락 유지를 통해가지고 인원보증을 받아갔어. 인원보증을 받았 들이니까 아 이제 식구끼리 가서 해결보라고 잠시 보낸거지. 게서 그것은 그 유지들이 받은 거거든. 허은숙이가 거기 가서 발전시키겐 하니까.

면담자 : 그럼 부락땅이네요? 그러면 거기가 부락땅이 되버린거네 거의?

구술자 : 부락땅은 아니지마는.

면담자 : 거의 부락땅처럼 거기 마을.....

구술자 : 아니. 아니. 경[그렇게]은 안돼고. 그 사람네가 인원보증 받았 들어가니까 잠시 사용하는 거지.

면담자 : 아 그러구나. 그 집 땅이네? 여전히 소유권은?

구술자 : 계남[그러니까] 그건 확실하게 모르고.....

면담자 : 모르고 한번 확인을 어쨌든 그런식으로 저희가 고바치가 중심이 인제 굴제라던지 이걸 거기서 하잖아요? 굴제. 굴제를.

구술자 : 음. 신평서도 했어.

면담자 : 그 전에는 신평에서. 지난해에도 저기서 한 거 같은데? 굴제.

구술자 : 음. 했어.

면담자 : 예 그니까. 그러면 굴제는 참여를 안 하시는 거? 별로?

구술자 : 나가 가이하고 원수인데 뭐.

면담자 : 아 굴제는 한번인가 그때 언제 한번 참여를 하신 것을 내가 본거 같은데?

구술자 : 안했어. 나한테 통보도 안해.

면담자 : 아.

구술자 : 거기 유지들한테 초청장 보내도.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나한테 얘기도 안하지.

면담자 : 그러면 하루일과는 어떻게? 문화재데 지금. 문화재잖아요? 옛날 김보연 선생님 있을 때는 그래도 참여 하신 거 아닌가요?

구술자 : 아니.

면담자 : 안했어요? 그때도?

구술자 : 난 검은돌로 온 후에 부터는 안했어.

면담자 : 안했구나. 그 전에만 그니까.

구술자 : 계남 검은 돌로부터 금이가기 시작 한거지. 나 도예촌에 있을 때는 나하고 가이는 구겨지지[나빠지지] 않았는데 검은돌 만들면서 나 한번 그라져실건데[이야기했을 건데]. 어디 가서 작업장을 차리느냐. 나가강 봐야할 거 아니냐. 얘기를 안터라고. 난 거기간걸 알면서도 물었거든. '저 나중에 그르쿠다[말하겠다]. 그르쿠다.' 경해도[그렇게 해도] 안 그라[말하다].

면담자 : 그랬구나.

구술자 : 경한게 검은 돌 행사를 하젠 하니까 저 현진숙이를 달고 왔더라고. 전수시켜주랜. 나 야이한테 전수 못시키겠단. 왜 그런고 하니까 작업장할 때 왜 나가 할거면 나가 강 봐야할 거 아니냐. 작업장을 어떻게 되는 걸, 잘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그것도 얘기 안하는 사람을 나 어떻게 하냐고.

면담자 : 맞아요.

구술자 : 현진숙이랜 한 사람이 '저 시켜준체만 함써. 한달에 한 번씩만이라도.' 경행[그렇게 해서] 나한테 욱들었지. 심의위원이나 된 사람이 그거 말이냐고. 그렇게 해서 전수되냐고. '일주일에 한번 이라던지, 한달에 한번씩만 해줍써[해주세요]'하길래 나한테 욱들었지. 쟁 가면서 은숙인 앞에 나가불고. 가면서 하는 말이 '계남 은숙이 도예촌으로 가건 전수시켜줍써.', '아 그건 해주겠다.', '계민[그러면] 불령[불러서] 해줍써[해주세요].'하길래. 계민[그러면] 전화번호주라. 은숙이 전화번호주길래 전화했지. '미쳤수과[미쳤어요], 전수받으러가게.' 경[그렇게]하는 거라. 쟁[그래서] 나또 진숙이한테 전화했지. '미쳐수과[미쳤어요] 안가쿠다[안가겠다].'(웃음)

면담자 : 그렇게 해서 전수, 그냥 그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 거? 하루 지금.

구술자 : 나?

면담자 : 문화재데. 뭐 이렇게 전수.

구술자 :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게고 아프고. 이거 아픈 후에 탐라문화재 한번.

면담자 : 아 탐라문화재 때.

구술자 : 갓 수술행[해서] 나올 때.

면담자 : 올해는 안 하시는 거? 탐라문화재 때.

구술자 : 아니 올해는 아직 모르지마는.

면담자 : 지난해 하신 거?

구술자 : 아 못했지. 금방 수술행[해서] 나온 때 문화재 하랜....

면담자 : 그 지난해는 한 거?

구술자 : 음. 그전엔 했지. 쟁[그래서] 한번한 그전에 한거는 은숙이 다 먹어브런 돈도 안줬

지. 은숙이 먹영 십원도 안줬어. 계[그러니까]난 나 보연이보고 계산서라도 보내
랜 하니까 계산서도 안 보내고.

면담자 : 음.

구술자 : 나 이제 영수증 받았 있거든.

면담자 : 일단은 그것은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좀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여러 가지 활
동을.

구술자 : 활동을 할 수가 이서계[있겠어? 부정의 의미].

면담자 : 그니까이.

구술자 : 아이 이걸 난 그 활동 아파서 하지도 못하고. 만약 아프지 않으면은 구역리 이장
한테는 그렇게 ㄴ랐어요[말했어요]. 정근하고 같이는 못하는데 계고 정근이는 굴
대장이고. 전수시키는 건 나가 해준다. 전수해줄 사람만 있으면 전수해준다. 겐디
나 그런말 했어요. 아까 모양으로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 하는 것은 나 돈 안
받았 해주겠다. 겐디[그런데] 매일 나가는 건 돈 줘야한다. 나 만들지는 못할 거
고 전수는 시켜준다 했어요. 요즘 지는 자꾸 강[가서] 청소도 하고 회의영 뭐 식
사도 하고 해도 뭐 고딱 뭐 청소 햄팬도[한다고도] 안하고 애기도 안해.

면담자 : 그러면 김정근선생님이 굴대장인가요? 불대장인가요?

구술자 : 굴대장.

면담자 : 굴대장으로 지정 받은 거 그러면은?

구술자 : 음.

면담자 : 불대장은 누구예요? 불대장.

구술자 : 불대장은.

면담자 : 없잖아요?

구술자 : 불대장은 아니 고달순이가

면담자 : 전수조교지. 불대장은 없네요?

구술자 : 계난[그러니까] 저 그게 신원이 죽어불든 바로 올라가는 거거든.

면담자 : 음.

구술자 : 저 고달순이가. 정근이도 바로 올라갔거든. 죽어부니까. 심사안행 올라가. 근데 강
신원이 죽어도 못가는게 구역리 와서 그 도에다가 등록이 되어있거든. 신원이는.
되어있을 때 아들을 올렸어. 전수생으로. 큰 아들을. 계서[그래서] 여기와서 굴 구
올때영 했어요. 저 고달순이는 고바치서 할 때만 해나고, 전수생으로 안하고 같이
굴 굽고 했지.

면담자 : 음. 아.

구술자 : 겐디[그런데] 신원이 죽어부니까 전수생으로 나눠분거지. 계난 신원이 아들은 것
도 모르는 거라. 자기 여기왕[와서] 하당[하다가] 전수 못 받았[받아서] 아방 죽
어버렸으니까 자기는 안되는 걸로만 알고 있거든. 계도[그래도] 고달순이는 요한
번 농협에서 보니까 저 조교랜 삼십만원 올라왔더라고.

면담자 : 그러면 불대장이 못되는 거? 고달순선생님은?

구술자 : 되게 된건데 도에 등록은 아들이 들어가버리고.

면담자 : 아.

구술자 : 이중 될 수는 없거든.

면담자 : 강신원 선생님 아들이 그 들어가 있는 거?

구술자 : 음. 구억리왕 할 때. 우리하고 명단을 같이 올라가버렸거든. 게니까 도에서 고달순 이한테 못주는 것 같애. 나 생각에는.

면담자 : 아.

구술자 : 두 사람은 둘 수가 없으니까.

면담자 : 아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거죠?

구술자 : 아 몰람지. 이런 거 저런 거.

면담자 : 아들은 원래 농사짓던 분이예요?

구술자 : 음. 게니까 여기왕 오래 살아지카부덴 아들을 올린거지.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전수생으로 하젠.

면담자 : 원래 강신원선생님 신평리에서 한건 아니잖아요?

구술자 : 원래는 사계서 했는데.

면담자 : 예. 그랬구나. 그런 문체 때문에 불대장을 못되는

구술자 : 못되는 이유가 그거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나 생각엔.

면담자 : 음.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구술자 : 해보나 마나 틀림없을 겁니다. 경안하면 바로 올라갑시다게. 심사도 없이 조교는. 게니까 조교 장학생 하는 게 그 말이거든. 장학생은 예비고. 조교는 바로.

면담자 : 그래서 김정근 선생님은 바로 올라갔구나.

구술자 : 어. 가짜건 진짜건 바로 올라가는 거. 죽어볼문.

면담자 : 아. 그랬구나. 그러면 허은숙선생님은 누구 조교예요?

구술자 : 그거는 조교가 없는 겁니다. 원래는. 바로 일도 안하면서 도에는 나 전수생으로 되어있더라고. 나 강[가서] 보지는 않았는데 먼저 박용..의장이 이 좀 따온게 있어. 거보니까 전수생으로 되어있어.

면담자 : 게면 부창래선생님은 또 뭐야?

구술자 : 부창래는 고원수.

면담자 : 아 고원수 밑으로 아 그렇게 된거구나.

구술자 : 고원수하고 같은 연령의 조금…….

면담자 : 위..

구술자 : 아니.

면담자 : 밑에, 밑에.

구술자 : 두 살인가 밑에인데. 옛날 같이 일해난 사람들이거든.

면담자 : 아 그래서 그렇게 되었구나.

구술자 : 그런데 그 사람을 조교로 달았더라고. 게난 난 조교는 어린사람 득랑[테러서] 배워줘야 조교지. 늙은 사람 차라리 문화재를 시켜줘야지. 뭐 저런사람 조교로 났냐고. 하니까 된다고 하더라고.

면담자 : 아.

구술자 : 되긴 너네만 되었지. 뭐가 된 거냐고. 같이 죽어볼건데. 게민[그러면] 또 전수생 또 달꺼냐고. 전수생 또 달지도 못하거든. 왜 그런고 하니까 이제부터 전수생이 씬서야 그 사람 죽으면 돼지. 지금 안된사람 명칭만 올렸다가 죽어볼문 전수가 안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득라그네[테러다가] 된덴 하는 사람 자체가 뭐가 잘못된거지.

면담자 :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마지막을 오늘 또 2면은[말하면] 복잡해지니까.

구술자 : 계고 거기 조교는 조교도 그런 사람들이라. 백도현이라고 고산사람 있어.

면담자 : 예. 알아요. 지금 아프신분.

구술자 : 아프신분인데 나이는 강신원이하고 동갑인데 나이는 팔십다섯. 이사람을 조교로 났단 말이야. 암행[아무리 해서] 맨들아도[만들어도] 참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 또 강창보라고 있어.

면담자 : 시에 사시는 분.

구술자 : 원래 신평사람인데. 이 사람은 팔십 둘인가 난데. 이 사람은 원래 개인 택시 하다가 몸 썰려가지고 개인택시도 못하고 놀고 있거든. 이런 사람을 장학생으로 놓으면은 어떻게 저거.

면담자 : 장학생이에요? 강창보 선생님, 전수조교 아니에요?

구술자 : 전수조교는 한 사람 밖에 못하지. 장학생은 몇 사람이나 되는데.

면담자 : 아.

구술자 : 장학생은 예비니까 몇 사람이라도 서너사람이라도 되는데 조교는 이 문화재하고 똑같이 맨든다[만든다] 해가지고 조교니다. 계. 계서 바로 올라가계. 죽어볼문.

면담자 : 그런 문제가 있구나. 강창보 선생님은 전수 장학생이네요?

구술자 : 장학생이지.

면담자 : 전수 조교가 아니라.

구술자 : 조교가 못돼지.

면담자 : 아 그런 부분이 있구나.

구술자 : 그래서 맨들어봐도 앞뒤를.

면담자 : 문화재 체계가 문제가 있네.

구술자 : 경[그렇게]하니까 나가 강창언이가 그런말을 해났어요. 저거 허기전에는 자기가 희생하는 면이 있더라도 문화재는 바로 잡고 가야겠다. 그런 말을 했거든. 이거뿐이 아닙니다. 제주도 문화재 다 그겁니다.

면담자 : 문제가 있네요. 그건 좀 짚어야 할 것 같은데 문화재 체계는. 아 그건 좀 문제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강창보 선생님을 전수장학생을. 장학생으로 있다는 거죠? 전수조교는 한 명인거죠? 그니까.

구술자 : 한명 밖에 안되는 거지. 조교는. 계난[그러니까] 조교는 삼십만원.

면담자 : 장학생은...

구술자 : 장학생은 이십만원 인가? 조교는 삼십만원.

면담자 : 음. 그렇게 되겠구나. 문화재 체계가 복잡, 전체적으로 좀 복잡하네요? 문제가 있고.

구술자 : 계난 나 옹기에 대한 건 하나도 못 2라점져.

회고와 전망

면담자 : 그러면 옹기에 대해서 2라주세요[말해주세요]. 옹기 이제 제주 전통옹기를 발전 시킬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술자 : 계난[그러니까] 이게 발전도 발전이지마는 그 옛날 해난 체제가 지금 기록이 잘 안되었을 겁니다.

면담자 : 네.

구술자 : 쪽하게 조사는 하는 사람들이 없어.

면담자 : 음.

구술자 : 게서 이게 옛날에 왜 허벅이 생기게 되었고, 왜 저 없어지게 되었고 이런 것이 아까모양으로 앞 뒤를 안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들[말할] 건 안 큰고[말하고] 그 다른 것만 다 그라지는데[말하고있는데] 이 허벅이랜 한게 옛날 사람들이 그 물 2키로에 가서 물 길어오려고 하니까 옛날 조상들이 맨들아논것 같은데 이게 허벅의 특성이지요. 게서 그 큰 허벅 막 바리허벅이라고 한 것은 남자들이 들고, 다음의 허벅은 여자가 젖고, 대배기는 처녀가 젖고, 아기들은 어린아이허벅 젖고. 이게 왜 지게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구덕행 지젠하면 아이들 막 장난으로 이덕행 지젠 막 하거든. 경행 별도로 만들어 주는 거라. 경하는 건데 그게 경해서 허벅으로 이름을 지었고 에 옛날 사람들이 지은거지. 게서 그 에 허벅이랜 한게 이게 육지는 동이로 물운반을 하지마는 여기는 허벅으로 하니까 경하니까 그때 허벅장이랜 한게 거기서 나온겁니다게. 이 심의위원들도 그때 심의위원들 뭐 2~3년 심의했는데 둘이 공부를 하게 되었읍니다게. 용기장하면은 전체 한국의 전체있고 허벅장은 당신 혼자뿐이니까 세계적으로 알아줄 것이다. 허벅장이랜 한거. 그래서 그 용기를 그렇게 해서 구워내서 이제 팔러가는 것도 여자분들이 차로 팔러 일부분에는 다 저서 갔고 우리는 그 계속 용기만 만든게 아니고 이 좀 쉴 때도 있어요. 계속 용기만 만든 게 아니고 계면 나는 말 구루마로 어디까지 들어가는 가 하니까 저 표선, 성산까지 들어갔어요. 말 구루마로. 실거다 놓으면은 한바티[한 장소에] 퍼서 그걸 할머니들은 파는 건데 팔면은 돈으로 받는게 아니고 곡식으로 받아오게. 그때는 바꿔치기. 난 뭐 절간 감자뼈따귀도 한 삼백개 받아가지고 ...까지 해봤는데 이렇게 물건으로 받고 돈은 없었고, 그래서 그쪽 쌀을 받아오면은 대정가서 팔지를 못해. 쌀이 나빠가지고. 갱[그래서] 그 이중으로 손해보고. 받아서 손해. 용기 못 팔아서 손해. 게[그래서]서 여기 와서 팔고 했는데 나는 다 했읍니다게.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말 구루마, 소구루마해가지고 용기도 싹졌고, 흙도 싹핑서 하면은 마차로 실러와야 거든. 차도 어섯고, 차는 그뻔 대정읍에 차 하나밖에 없었어요. 딱. 또 차는 거기 들어간 나오지도 못했고. 마차로 흙 실러오고. 또 나무., 선비, 선비 비어놓은 거 목장에 가서 실러오고.

면담자 : 음.

구술자 : 뭐 일을 여러 가지고 했지. 계난[그러니까] 돈은 벌긴 벌었지만 다 노름해서 어서 부렸지.

면담자 : (웃음) 예.

구술자 : 이제 그르면[말하면] 옛말이로고. 그때는 그게 말도 못하게 된겁니다. 경[그렇게] 하다가 용기가 끊어진게 그 육지.

면담자 : 플라스틱,

구술자 : 아니. 육지 유약 칠한 용기를 배로 들어왔어요. 배로. 성산으로도 들어오고 어디 다른데로도 들어오고.

면담자 : 칠양으로.

구술자 : 어. 그거 왕 팔기 시작하니까 반값이거든. 제주도 향아리 반값이라. 게니까 자연적

죽은거라.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경해서 죽다보니까 플라스틱이 나오는 거라. 계난 영원히 가분거지.

면담자 : 경쟁에 밀렸구나. 육지용기하고.

구술자 : 경한데[그런데] 나 여수강 보니까 여주사람이 제주시에 그저 모여 놓은 사람. 향
아리들 모여다 놓은데.

면담자 : 아 노형에 거기 그 고은당?

구술자 : 고은당인가.

면담자 : 고은당도 있고.

구술자 : 사서 간 사람이 있더라고. 겐디 그 사람은 제주도 향아리를 그렇게 좋아가지고 유
약 안 칠하니까. 그렇게 그 사람은 열로 하나씩 딱딱 차에 놔서 육톤반짜리 차에
놔는데 그때 뭐 오천만원 쯤 사고랜하면서 갔는데 그 사람은 돈 많이 쥐서 사갔어
요. 겐디 노형에 모여다놓을 땐 싸구리도 막 모여다 놓은때지. 처음이니까. 뭐 몇
천원 짜리도 있고 뭐. 만원짜리가 없었어. 그땐. 계난 거의 주서가기도 하고. 버려
분것도 많았지. 게서 이제는 그게 유물이 되어가지고 뭐 했지마는 그때는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게니까 모든게 다 좋아. 해보면.

면담자 : 음.

구술자 : 육지꺼보다. 육지는 에 영 ㄱ르면[말하면] 주제 벗어진거 님는데. 여기 향아라만이
안 익습니다. 여기거는 천이백도까지 가는데 육지 향아리는 유약 칠하면은 천이백
도까지 못가.

면담자 : 아 그러구나.

구술자 : 저게 유리성분이 돼서 유약이. 이게 거꾸로 흘러내려부러. 너무 온도 올리면. 또
덜까면은 이게 견품으로 있어요. 한 이십면 되면은 벙끼[페인트] 벗기듯 벗어. 안
으로.

면담자 : 음 유약이.

구술자 : 응 게서 그게 나쁘다고 해사지고 그게 견품으로 도예촌에 낳 손님들오면 ‘이거 볼
썬. 이거 유약칠한 거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해보면은 향아리 하다가 모지렁 바닥으로 이렇게 딱 깨지면은 유리병을 이
렇게 쭈욱 구웁니다. 구우면은 그게 녹아가지고 한덩이랑가 돼. 그 식이라. 유약
이. 빨리 구워내면은 약이되는 거고. 너미 지나쳐붙면은 이 거꾸로 흘러내리니까
거기는 한 백도까지가도 백이십, 아니 천도가도 천이백도 까지 간다고 얘기는 하
는데 거까지는 못가. 못가.

면담자 : 음.

구술자 : 게서 여기께 숨쉬는 향아리가 맞아. 육지건 숨쉬는 향아리 지금도 ㄱ릅니다[말한
다]. ㄱ르는데[말하는데]육지는 그 유약 칠해져서 다 구멍 막아진거지. 우리 나무
이파리 영[이렇게] 따당보면 구멍있거든. 땀구멍. 이것도 어디 사람신지 몰라도.
미짱해그네 그 큰푼 그 치거든. 그 저 일사병 방지로. 것도 구멍을 다 막아버려.
그것도 그 약을 치면은. 그 일사병 방지는 좀 되는데 게서 그거 가뭇 때 치면은
낙엽도 다 가붙고 그식이라. 게서[그래서] 제주도 향아리는 그런 구멍이 있단말입
니다. 땀구멍이 우리모르게. 게서 물받 놔뒀면 베게티강[밖에다가] 놔두면은 그,
물시는데는 땀나고 물 어신데는[없는 데] 땀없어. 게민[그러면] 우리가 물 어디까

지 온 거 알아져. 여기 안에서 봐도.

면담자 : 아그래요? 구멍이.

구술자 : 구멍이 아니도 땀나. 사람 땀 나듯이 물 신데는[있는데는] 땀 나고. 물 없는데 그
냥 마른채 있고.

면담자 : 그러면은 새지는 않나요? 새는 건?

구술자 : 새는 것도 있어요.

면담자 : 아 어쩔 때 새는 거예요? 그러면?

구술자 : 새는 거는 이 흙이 안 좋은 거.

면담자 : 아.

구술자 : 흙에 보면은, 요 한번 학생 가르치게 강[가서] 보니까 이 저 육지서 온 흙인데 여
기 화산 그 무신 돌가루를 섞어야 유약이 된덴 해가지고 섞은게 있더라피. 게서
그것이 구우면은 이렇게 벌러져. 켠다고. 그 자리만. 그게 물 새는 구멍이 되어버
러. 그래서 여기 흙 나쁜거는 그렇게 나옵니다. 흙 좋은 거는 딱 해보면

면담자 : 새지 않는데.

구술자 : 그냥 땀만 나는데. 거는 물세. 게민 속에 있는 거지. 여기 빨래비누나 뭐행 딱 몽
쳐버리면 안세.

면담자 : 옛날 옹기 팔 때도 그런 것들 팔게 잘못 만든 사람이 하는 데는…….

구술자 : 아니. 잘못 만드는 게 아니고.

면담자 : 흙을.

구술자 : 흙으로 갑니다. 잘못 만든거는 굴에서 뿔라지고.

면담자 : 음.

구술자 : 이 흙 나쁜거는 그런식으로 나옵니다. 게민 그게 눈속임도 눈속임이지마는 영구
적으로 막아져. 왜 그런고하니까 물 놓고, 거 때 끼고 해가면 처음엔 안 나와도.

면담자 : 약간의 안 좋더라도?

구술자 : 그걸로 행 놔두면 영구적으로 막아져. 경행그렇게 해서] 여기 팔러가는 사람은 거
준비행[해서] 가거든. 또 그릇 만든 거 깨진 거 마른 거 굽지 않은 거. 그걸로도
부비면 돼여.

면담자 : 아

구술자 : 거 옹기장시는 다 가정가거든.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게난 뵈려보소. 여기서 저 성산까지 팔러가고. 참.

면담자 : 선생님도 직접 어머니랑 같이 누나랑.

구술자 : 켠디[그런데] 난 실어다만 주고.

면담자 : 실러다만 주고.

구술자 : 파는 건 어머니가 하고 하는데.

면담자 : 수레도 실어준 거?

구술자 : 뭐?

면담자 : 거기 성산 수레로 성산쪽에 퍼줄 때는 뭘로 간 거?

구술자 : 마차로.

면담자 : 마차로.

구술자 : 마차밖에 없다니까. 차 모슬포 하나 뿐인데.

면담자 : 아 그러면 여기서 성산까지 갈려면은 시간 이렇게 마차로 갈려면은.
구술자 : 아침 두시되면 일어나는 거라.
면담자 : 으음. 두시에 일어나서 몇 시간 걸려? 거기까지 가는데?
구술자 : 여러시간 걸리지. 한 열시간 걸리지.
면담자 : 그러면 마차에 어머니도 타고.
구술자 : 아니. 어떻게는 탄 차로 가고,
면담자 : 아. 그러면 혼자 그걸 싣고.
구술자 : 강 퍼동 오는 거지,
면담자 : 또 보면은 제가 사진에서 보니까 지고 있잖아요?
구술자 : 진진 가까운데고. 거기도 가면 저저.
면담자 : 부지겐가? 뭘로? 지고 사진 찍혀진것도 있더라구요. 샘이. 지고 이렇게 있었던 사
진. 그 지는 것이 뭐예요? 이름이?
구술자 : 허벅아니?
면담자 : 허벅지는 거. 큰 향아리 지는.
면담자2 : 그 지게 이름마썸. 지게이름.
면담자 : 그게 뭐예요? 지게예요?
구술자 : 아 팔러가는 건 아니지.
면담자 : 어디 이동하는.
면담자2 : 이동할 때 용기를 저가지고.
구술자 : 바지게주게. 바지게.
면담자 : 바지게. 아 바지게.
구술자 : 육지는 거름 만드는 것도 걸로 나르고.
면담자 : 예. 근데 사진에 어디서 본 사진에.
구술자 : 건 굴에 들어갈 때 바지게로.
면담자 : 바지게로 들어가고. 어쨌든 지금 선생님께서는 지금 토립부터 흙, 흙 파는 거부터
때리는 거 그 토립하는 거.
구술자 : 다 해봤어요.
면담자 : 다 했죠? 물주는 안해보셨죠? 도공장이었으니까.
구술자 : 아 물주도 했어요. 많이는 안하고.
면담자 : 아 그리고 이제 불때는 것은?
구술자 : 불때는 것은 우리 안했지.
면담자 : 그니까 불때는 걸 근데 가마가 어떻게 된 다는 건 알잖아요?
구술자 : 아 그 무신 건 직접 말양은 안했지만 하는 건 다 일지. 지금 그 굴대장하는 r나
똑같이 알아. 거 도예촌에서 같이 했다고.
면담자 : 다 알아야지 지금. 다 아는데 왜 이렇게 분업을 했을 까요? 왜?
구술자 : 분업은 만들어놓은 거라니까.
면담자 : 그러죠? 제주도의 특징이 분업이라고 이렇게 모든 용기 과정이
구술자 : 계난[그러니까] 그렇게 가당보면은 이 모든게 잘 안맞아지지. 원래는 한 사람이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아니. 두 사람.
면담자 : 두 사람정도.
구술자 : 음. 불대장이면 굴 대장이 불대장까지 하고.

면담자 : 굴대장이 불대장하고..

구술자 : 음. 또 옹기장은 옹기장대로 하고.

면담자 : 음. 그 다음에?

구술자 : 흙 파오는 건 자가고.

면담자 : 으음. 그 다음에 토림, 토림은?

구술자 : 토림도 자기대로 해야지.,

면담자 : 아.

구술자 : 뭐 못하면 사람 빌어도 하지마는 거의 자기대로 해야지.

면담자 : 결국 두 명이 필요한 도공, 도공하는 사람하고 불(굴) 대장 그 두명이 중심이네요?

구술자 : 우선 급한게 그거. 나머지는 다 자기냥[자기스스로]으로 해. 여기는.

면담자 : 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구술자 : 음.

면담자 : 불대장이 굴도 박을 수 있으니까.

구술자 : 음 자기가 박아야 자기가 필요하거든. 계난 굴 박는 건 막 쉬운거고. 건 뭐 저 설 계도로 나오진 않았지마는

면담자 : 불때는 것도 힘들잖아요 요령이 있어야지

구술자 : 불때는 건 옛날 여기서는 힘센 사람만 빌었 했다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땡기는 사람이 있었어.

면담자 : 옛날에?

구술자 : 음.

면담자 : 누구데요? 돌아가셨겠네요?

구술자 : 다 돌아갔지.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그 사람들은 지금 들으면 자가용도 들어.

면담자 : 아 불때는 것이 힘들죠?

구술자 : 힘이.

면담자 : 흙 치는 것도. 흙 때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구술자 : 아니, 흙 때리는 건 정 힘들지 않은데, 그 단돌이로 강 힘들지. 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막 쉽고.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것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 거 이녀양으로 못 들이니까. 이 보성강 빌어오고.

면담자 : 음. 아 그런식으로 운영을 했네요? 물주가, 물주집에서는 어진간한 것은 다.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구술자와 말이 섞이는 중)...못 만드니까 도공을 모셔오고, 그리고 굴 박고 이제 뭐냐 굴 박을 때도 같이 박잖아요? 계로 해가지고.

구술자 : 굴 박는 건 한번 박아불면 끝이니까.

면담자 : 예. 그 다음에 불때는, 불 때는 것이 기본이죠?

구술자 : 음.

면담자 : 아 그런식으로 운영을 지금 마을에서 했죠? 보면은.

구술자 : 음.

면담자 : 근데 분업이라는 부분들이 강조되가지고 제주도 그래서 옹기장이 분화가 되는 거

잖아요? 허벅장에서. 이렇게 몇 가지로 나뉜거잖아요?

구술자 : 건 필요해서 나뉜 건 아닐건데. 모르긴 모르지.

면담자 : 예. 어쨌든 그런식으로 움직였고. 그래서 옹기가 뭉라지고는 아까 다 힘드셨겠네.
다.

구술자 : 힘들지. 계난[그러니까] 저. 그런말 해났어요. 옹기가 다 치와부니까 영창갔다 온
사람 모양[모양]으로 하 이렇게 좋은 걸 이거 안해도 돈 벌수 있는 걸 해졌다고.
그거 행 얼마어시니까..

면담자 : 과수원.

구술자 : 과수원 나왔거든. 팔십, 칠십 몇 년도부터..나왔어.

면담자 : 예. 예.

구술자 : 또 그때는 또 과수원도 동네사람은 못했고 모슬포 일등 부자들 밭 사면서 했거든.

면담자 : 아.

구술자 : 몇 사람이 밭 사가지고 그거

면담자 : 그쪽에서 과수원 만든 거네요?

구술자 : 여긴 과수원 안된다고 했어요.

면담자 : 예. 맞아요.

구술자 : 서귀포외에는 안된다. 바람길이 돼서 안된다. 게서 해보니 되는 걸.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겐디[그런데] 지금도 차이는 납니다. 서귀포 미깡이 일등. 그 다음 여기. 제주시는
제일 바꾸인데 밀감이. 왜 그런고 하니까 바람 많이 맞을수록 껍질이 막 두꺼와.
미깡도 막 시고.

면담자 : 맞아요. 맞아.

구술자 : 서귀포 미깡[밀감]은 시지 않은 게 탈이라. 또, 서귀포 미깡은 곧 땅 먹어도 저 처
음 따는 대 먹을 때는 서귀포 미깡이 낮고, 저장에서는 여기게 낮고.

면담자 : 두꺼우니까이.

구술자 : 이 신맛이 도망가거든. 저장해놔두면. 거기건 저장해 놔두면 막 싱거와버려. 서귀
포건. 맛이 없어.

면담자 : 아. 또 그런 차이가 있구나.

구술자 : 거기건 바로 하명[하면서]. 계난[그러니까] 시에서 해당 서귀포 미깡[밀감]이런
서귀포에서 보내면 자꾸 걸리고, 걸리고.

면담자 : 아 그런식으로 일단은 옹기는 뭉라져서 새롭게 보존, 전통옹기를 보존하자는 움직
임으로 온 거잖아요? 지금? 게서 그 보존하는 것은 선생님 생각에 바람직한거죠?
보존은 하는 것은. 보존 방법이 문제지.

구술자 : 음.

면담자 :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라주세요[말해주세요].

구술자 : 방법은 나가 알 수 이실카[있을까].

면담자 : 아니. 보존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이 된 거
잖아요.

구술자 : 아 계난[그러니까] 보존 하는 건 맞는 말인데 보존을 어떻게 할까하는 건 나가 모
르지.

면담자 : 으음.

구술자 : 이런 건 다 공무원들이 하는 건데 나가 어떻게 알아.

면담자 : 음.

구술자 : 나해도 필요도 없고.

면담자 : 예. (웃음) 그래서 더 옹기에 대해서 더 마라[말해] 주실 꺼?

구술자 : 음?

면담자 : 더 마르실[말할 거] 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 옹기에 더 마를[말할]꺼 뭐. 옛날에 물길으러당기고 그런 것들 밖에 대강 다 마랐지[이야기 했지].

면담자 : 음. 더 마르실[말할 거] 꺼 없으세요?

구술자 : 음.

면담자 : 어쨌든 그 이렇게 장시간동안 감사합니다.

구술자 : (웃음)

색 인 목 록

강신원
강창보
강창언
고남규
고달순
고신길(고홍수)
고원수
고정순
고종환
김경홍
김대중
김보연
김청길
문대림
박두만
박영종
박용범
박용석
백도현
송창길
송창식
신봉염
신창수
이경현
이윤옥
허은숙
현진숙
홍태곤